



더우면바지결고

더바

소개글

날씨 더우면 바짓가랑이 좀 걷어 올리고 살면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한 세상 건느려고 합니다.

목차

1	너무 통속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죄송~!	4
2	달마가 추남이 된 사연	24
3	옛날 이야기	26

***파일도 올렸으니 시간 나시면 다운 받아 보세요.

 [행복하려면.pptm](#)

01-표지와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하려면 실력을 갖추어라' 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더바학습전략연구소는 제가 앞으로 열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장난스럽게 정해 보았습니다.



02-목차

공부를 해야 하는 까닭을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은 말하는 사람의 출중한 학식과 인품이 경지에 도달해 있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이런 저급한 까닭으로 말씀드리는 제 분수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쳇말로 출세를 위하여 공부를 해야 하고,

명예를 추구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질 인생의 목표도 인생의 괜찮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역사상 이런 목표를 추구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겠죠?



03-삼의 질 추적 결과

이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명문으로 소문이 나 있는 예일대학교,
 미국 코네티컷 뉴헤이븐에 ,
 다음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명문입니다.
 대통령 5명과 힐러리 6명 등입니다.

-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B.A. 1878) - 제 27대 미국 대통령
- 제럴드 (LLB 1941) - 제38대 미국 대통령
- 조지 H. W. 부시 (B.A. 1948) - 제41대 미국 대통령
- 빌 클린턴 (J.D. 1973) - 제42대 미국 대통령
- 조지 W. 부시 (B.A. 1968)- 제43대 미국 대통령
- 힐러리 - 현 미국 국무장관
- 조사이어 윌러드 기브스 - 열역학에 많은 기여를 한 물리학자 (미국 최초의 공학 Ph.D 1863)
- 새뮤얼 - 전신(telegraph)용 모스 부호
- 어니스트 로런스 - 사이클로트론 노벨 물리학상 (1939)

라스 온사거 - 아이징 노벨 화학상 (1968)
 머레이 - 쿼크 노벨 물리학상 (1969)
 데이비드 - 액체 헬륨으로 노벨 물리학상 (1996)
 레이먼드 데이비스 - 중성미자로 노벨 물리학상 (2002)
 폴 크루그만 - 노벨 경제학상 (2008)

그러나 이런 대학의 졸업생도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27%는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딩크 ,
 실력으로 명예를 얻었고,
 명예로 부를 얻었습니다.
 성공한 인생 틀림없겠지요?



04-현재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한자어로는 '人間'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국학 특강을 하시는 장영주 선생의 주장이 이와 같습니다.
 하늘과 땅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이죠.

천지인이 삼재인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도 이 세 가지 재료를 모음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학생들은 어떨까요?

종적으로 나는 어떤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로 인하여 이런 환경과 학교에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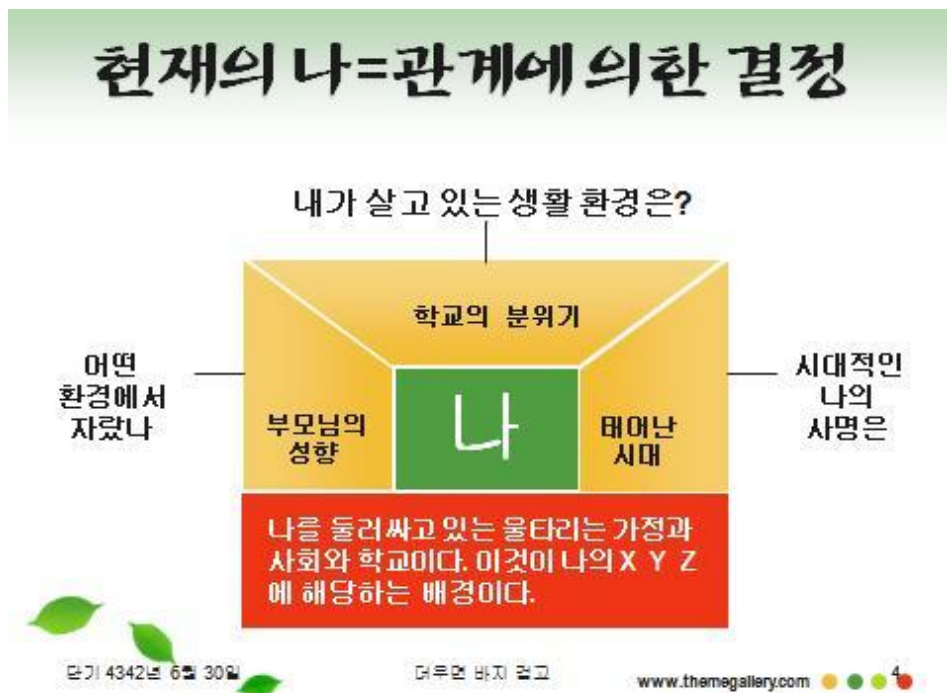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는 생일보다 이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

꼭 우리의 생일날 그날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갈 배경입니다.

누구도 이 배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알맞은 나의 사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05-학력별 임금 격차

통계청에 들어가 온갖 자료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료가 없어서 2005년 동아일보에서 .

더 알기 쉽게 학력별 평생 임금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남자 대졸 100

여자 대졸 91

남자 고졸 77

여자 고졸 49

이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하니 모든 부모님들이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여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력별 초임 임금 격차

2005년 9월 10일 (토) 동아일보

직업전문학교	100			
지방권전문대	118		평생	임금
직업기능대학	130		여고졸	49
수도권전문대	134		남고졸	77
지방권4년제	153		여대졸	91
수도권4년제	193		남대졸	100

단기 4342년 6월 30일

더우면 바지 걷고

www.themegallery.com 5

06-기회의 신 카이로스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

즉 내 앞에 있을 때는 잡아 챌 수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잡아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나간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닥친 그 일을 지금 할 수 없다면,
이후 어느 때라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에게는 그에게 맞는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기회가 와도 못 맡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아지면 담당할 수 있는 일의 가짓수도 줄어들다고 해야 되죠.

기회의 신 카이로스



07-공부를 잘 하려면

수능 시험의 모든 문제가 논리 문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연관성이 없어보이는 .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추리가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체계를 갖추면 추론이 됩니다.

학문적으로 본 적이 없거나 보여줄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학자들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두 사실의 연관성을 긴밀하게 엮어내는 힘이 논리력입니다.

논리가 서면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동설 지동설이 다 이런 논리적 바탕 위에서 주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 시험은 어떤 사실의 결과보다도

논리적인 과정을 더 중시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수학경시대회나 올림피아드에서

답은 틀리지만 풀이 과정이 맞으면 상당한 점수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무슨 일 에나 논리를 세울 줄 알아야 한다

논리적이지만 않은 것은 학문도 아니다



08-실력 있는 학생

그러면 실력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독서교육론 학자들은 스키마 이론으로 대답을 제시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란 결국 스키마가 풍부한 사람을 뜻합니다.

스키마가 풍부하면 주어진 문제가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으며,

문제의 구조가 잘 보여서, 어디를 건드려야 푼다고 터지는지 잘 알아 냅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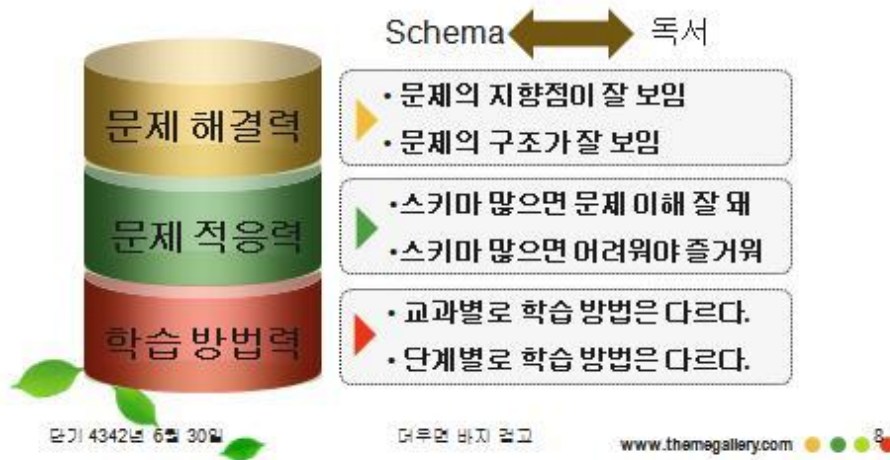
그런 문제의 구조와 지향점이 잘 보이는 학생은

교과별로 그리고 교과목의 단계별로 어떤 방법의 학습법이 필요한지 잘 알게 됩니다.

새끼에게 젖 잘 먹이는 방법을 젖 먹이지 않는 닭은 알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실력 있는 학생

실력이란 어떤 힘을 말하는 것인가?



09-교양도 논리의 일종

그리스 신화의 유명한 한 장면을 그린 것.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페르세포네는 하데스에게 , 이를 알게 된 데메테르는 슬픔과 분노로 땅을 저주하여 대지는 황폐해지게 되었다.이를 보다못한 제우스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페르세포네를 . 그러나 페르세포네는 .결국, 페르세포네는 , 그동안 데메테르는 겨울동안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페르세포네는 [씨앗의 여신]이라는 숨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겨울 동안 땅 속에 꼭꼭 숨어 있다가 봄이 되어야만 싹을 틔우고 여름과 가을을 나는, 그런 씨앗의 이미지를 그리스인들은 이 젊은 여신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다.그녀는 가난한 노동자 계급의 부모 밑에서 열남매 , 기능공이었던 아버지가 병든 어머니와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 도로시가 일찍부터 오빠를 도와 동생들을 보살필 수밖에 없었다. 도로시가 키도 작고 얼굴과 몸의 비례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차츰 그녀를 관찰해가던 레이턴 도로시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도움은 다 주었다.

교양도 논리의 일종



이 그림은 페르세포네가 제우스의 사자인 헤르메스의 인도로 지하세계를 벗어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어머니 데메테르가 팔을 활짝 벌려 그녀를 맞고 있다.

페르세포네의 몸에서는 아직 죽음의 빛깔인 푸르스름함이 채 가시지 않았으나, 못마저 붉은 어머니 데메테르의 품에 안기는 즉시 온기를 되찾을 것이다.

어머니의 힘은 이처럼 크다.

페르세포네의 구출 프레스코화 헤르메스 (영국, 1830~1896)

만기 4342년 6월 30일

너무면 바지 입고

www.themegallery.com

10-달마는 왜 추남인가?

스토리 텔링도 .

얼토당토 ?

이 그림은 조선시대 화가 김명국의 달마도입니다.

세계 최고의 미남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는 도중 길이 막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보니

집채보다 더 굵은 뱀이 길을 가로막고 죽어 있었습니다.

뱀이 굵고 미끄러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달마대사는 할 수 없이 자기의 겹질을 잠시 벗어놓고

영혼만 빠져나와 뱀의

뱀의 몸둥이를 .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자기의 그 미남 겹질을 벗어놓고 어느 나쁜 놈이

보시다시피 이 흉측한 겹질을 벗어놓고 가버린 것입니다.

겹질을 바꿔 입고 갈 정도의 도술이라면 따라가도 잡을 수 없습니다.

겹질이 없으면 전교도 허사 아니겠습니까?

자기야 사람들 말을 알아 들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말 즉 달마대사 영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터이니깐요.

할 수 없이 흥측한 껌질이라도 입고 가야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 흥칙한 .

이렇게 불법을 중국에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달마대사 그림은 이렇게 흥칙한 .

그저 흥칙하게만 .

달마는 왜 추남인가

스톨리 텔링 역시 논리

최 고의 美男 인 도 서 출 발
도 중 막 힌 길 을 뚫 어 줌
그 런 와 중 에 껌 질 이 바 뽼
껌 질 없 으 면 전 교 도 허 사
흥 측 한 껌 질 로 중 국 도 착



단기 4342년 6월 30일

더우면 바지 걷고

www.themegallery.com

11-독서에 왕도는 없다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좀 특이한 예로 독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알아봅시다.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섬에 1차 유배 갔을 때 5년 동안 천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힘으로 재기에 성공해서 다시 정권을 잡기도 했죠.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장하준 교수는 초등 4학년 때, 1시간에 250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동생 장하석도 독서광으로 .

재클린 오나시스 독서광입니다.

그녀는 독서를 통하여 영부인으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닦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재키를 .

프랑스의 우아함, 미국의 세련됨, 스페인의 정열을 다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워너비 재키'라는 책이 출간되어 있으므로 읽어 보시면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독서광들 .

독서에 왕도는 없다

나폴레옹~5년 유배기간 1,000권 읽고 복귀
 장하준 교수~초등4년 '250쪽/1h' 읽음
 재클린 케네디~남과 대화 시 세상의 중심이 됨
 한나라 주매신~나무를 해 오면서 독서 열중
 소진~상투를 대들보에 묶어놓고 책을 읽음
 당나라 이팔~쇠뿔에 '한서' 걸고 꿀 먹이며 독서
 왕육~남의 양 치다가 책에 빠져 양을 모두 잃음
 고봉~아내가 장보러 간 사이에 마당에 널어놓은
 겉보리가 소낙비에 다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책만 읽었던 후한 때의 선비



만기 4342년 6월 30일

더우면 바지 걸고

www.themegallery.com

12-독서왕들의 예

또 세계적인 독서광들을 소개합니다..

01. 세종 - 백독백습으로 15세기 지식 경영 사회
02. 나폴레옹 - 유럽 전역을 덮은 광대한 독서 상상력
03. 링컨 - 거듭된 실패와 절망을 이겨낸 성경 읽기
04. 정약용 - 실천적 행동력을
05. 에디슨 - 도서관을 통째로 읽은 벤처의 선구자
06. 헬렌켈러 - 육신의 장애를 떨쳐버린 손가락 끝 독서
07. 모택동 - 독서로 이룬 혁명의 씨앗과 결실
08. 김대중 - 고난의 독서에서 배운 도전과 응전
09. 박성수 - 독서 경영으로 이룩한 신실한 기업
10. 오프라윈프리 - 독서로 얻은 인간 감정의 원초적 이해

독서왕들의 예

1. 세종 - 백독백습으로 이룩한 15세기 지식 경영 사회
2. 나폴레옹 - 유럽 전역을 덮은 광대한 독서 상상력
3. 링컨 - 거듭된 실패와 절망을 이겨낸 성경 읽기
4. 정약용 - 실천적 행동력을 지닌 신지식인 독서
5. 에디슨 - 도서관을 통째로 읽은 벤처의 선구자
6. 헬렌켈러 - 육신의 장애를 떨쳐버린 손가락 끝 독서
7. 모택동 - 독서로 이룬 혁명의 씨앗과 결실
8. 김대중 - 고난의 독서에서 배운 도전과 응전
9. 박성수 - 독서 경영으로 이룩한 신실한 기업
0. 오프라윈프리 - 독서로 얻은 인간 감정의 원초적 이해

만기 4342년 6월 30일

더루먼 바지 입고

www.themegallery.com 12

13-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 Thomas Khunn 이 저술한 "과학혁명의 구조"는 20세기 최고의 명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모두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새로운 해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한 평을 듣는 것입니다.

과학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혁명을 일으키며 발전해 나가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은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패러다임이죠.
천동설과 지동설 사이에 한 단계 폴짝 뛰어오르는 경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과학혁명의 시기라고 합니다.

1차 과학혁명은 갈릴레이로부터 , 뉴턴에서 끝난다. 이 두 사람의 간격은 150년입니다.
즉,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 것이죠. 수천년간 150년 만에 바뀐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론을 주장했습니다. 두 설이 다 옳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티븐 호킹은 .

이런 주장이 다음 세대에 받아들여져 통용된다면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도 과학혁명기간이 될 것입니다.



14-털없는 원숭이

데스몬드 모리스가 '털 없는 원숭이'라는 책은 세계적으로 천만부나 팔린 베스트 셀러였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이 동물과 달리 높은 지능을 가지게 된 까닭으로

'유태 보존'이라는 개념을 설파했습니다.

인간을 너무 동물학적으로만 바라보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 분의 이 견해는 당시에 탁월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유태 보존이란 태아 시절의 모습이 태어난 뒤에도 유지 보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태보존 모습을 통하여 인간과 동물을 바라보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미 뱃속에 들어 있는 태아는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 같이

몸의 축 방향이나, 시선의 방향이 직각으로 교차하는데

태어나고 난 뒤에는 동물과 인간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동물은 태어나게 되면 목이 펴져서 몸축과 시선축이 ,

인간은 목이 펴지지 않아, 몸축과 시선축이 .

인간은 목이 펴지지 않으니, 땅에 기어다니게 ,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이는 게 땅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나 일어서게 되면 시선의 축이 몸축과 ,

아주 편해지고, 두 손도 자유로워 집니다.

손이 자유로우면 원가를 만들게 되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에 의하여 인간은 지능이 발달하게 되었고,
만물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5-진화론의 유혹

이 이야기는 세계적인 생물학자이자 진화인류학자이며,

현재 뉴욕 주립대학교의 생물학과 인류학 교수로 있는

'데이비드 윌슨'이 저술한 "Evolution for Everyone 진화론의 유혹"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적 지식은 세 가지 특성 때문에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예측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음 발명되었을 때 플라스틱은 좋은 발명품 같았으나 유해한 호르몬이 나올지는 예측하지 못함

지식을 과신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추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더 완벽한 지식을 획득해야 함

〈비윤리적 사용을 막으려면…….〉

실질적으로 강력한 힘을 지닌 발명품은 선한목적으로 , 타인을 해치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음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이기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함

사실적 지식 자체는 윤리적인 사용과 상관 없음

〈도덕적 가치의 약화를 막으려면…….〉

실용적 현실주의와 사실적 현실주의의 관계를 고려해야 함

사회의 지속과 사실적 지식 사이에서 사람들을 번영할 수 있게 하는 믿음들 간에 타협이 필요할까?

훨씬 더 일반덕인 타협일수록 더 심각한 딜레마를 낳음



16-의욕이 중요해

영어의 'education', 독일어의 'Erziehung', 프랑스어의 'éducation'은 다 같이 라틴어의 'educatio'에서 유래한 것으로 빼낸다는 의미와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내부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미숙한 상태를 성숙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기유발이 되어 있는 사람은 평생 언젠가는 공부한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앞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의욕'입니다.



17-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습니까?

'패션'이라 하면 우리는 그저 '열정'이란 의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 제목만 보더라도 '패션'이 '열정'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패션'은 '열정'인 동시에 '수난'인 것입니다.

바흐의 유명한 '마태오수난곡 [St. Matthew Passion]'도

수난을 뜻하는 'ordeal'이나 'suffer'를 사용하지 않고,

'passio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겪기 마련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의욕이 없을 것이고,

의욕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욕도 얻어먹지 않게 되겠지요.

따라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수난도 가장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은 이 수난을 즐겨 받아들입니다.

욕이 뭐 배 따고 들어오겠습니까?^^

Passion이란?

영화 'Passion of Christ'를 통하여 본 '열정'의 의미



18-행복한 나는?

성공이란 '행복한 나'를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

빈틈이 없는 모양은 흔히 벌집 모양의 육각형이라고 합니다.

6각형은 삼각형이 두 번 포개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중 가장 진정으로 추구하여야 할 일이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수많은 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람은 건강, 교육,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에 해당하는 것은 여행, 관람, 구경, 체험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람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경제와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가족은 내 모든 활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행복이 내 인생의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족도 경제력과 건강과 교육력이 .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았지만.

이 여섯 가지는 독립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하려면 .

또 운동하는 방법도 교육을 받아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보람 있는 경험을 하는데 가족과 함께라면 금상첨화이겠지요.

보람 있는 하는데 경제와 건강과 교육은 반드시 바탕에 깔려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여섯 가지는 임의로 나누어 놓아서 그렇지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 통째로 범벅이 되어있는 상태가 나 자신이고,

따라서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도구인 동시에 스스로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9-목표설정은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은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이 아니면 중간목표를 정할 수 없고,

중간 목표가 없으면 오늘 할 일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가 수립되었으면,

대학 학과 직업 희망에 따른 조건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나,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 스스로 보람이 있어야 하므로 직업 자체가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직업인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회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직업이라면 선택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보수입니다.
 아무리 보람이 있고, 사회에 공헌하는 직업이더라도
 보수가 너무 작아서 가정 경제에 판타이 .

최종목표인 희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 따지고, 부모님이나 친구나 선배나 선생님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20-마지막 선물

어차피 통속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으니만치, 통속적으로 끝맺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베토벤 바이러스에 나오는 이 대사 기억하시나요?

어차피 통속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으니만치, 통속적으로 끝맺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베토벤 바이러스에 나오는 이 대사 기억하시나요?

- 하나만 물어보자. 지휘배우고 싶다는 거. - 배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꿈으로 그냥 놔둘 겁니다.- 꿈? 그게 어떻게 니 꿈이니? 움직이지 않는데그건 별이지. 하늘에 떠있는. 가질 수도 없는, 시도조차 못하는, 쳐다만 봐야 하는 별..누가 지금 황당무게 별나라 얘기하재? 니가 뭔가 해야될 거 아냐! 조금이라도 부딪히고 애를 쓰

고 하다못해 계획이라도 세워 봐야 거기에 니 냄새든 색깔이든 발라질 거 아냐?.

그래야 니 꿈이다 말할 수 있는 거지.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다 니 꿈이야? 그렇게 쉬운 거면 의사, 박사, 변호사, 판사, 몽땅 다 갖다 니 꿈하지 ? 꿈을 이루라는 소리가 아니야. 꾸기라도 해보라는 거야.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중에서

마지막 선물

꿈? 그게 어떻게 니 꿈이야? 움직이지 않는데.



단기 4342년 6월 30일

더우면 바지 걷고

www.themegallery.com 21

<<달마대사가 세계 최하의 추남이 된 사연>>

=====이런 이바구를 제가 지어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말이라 믿어야 됩니다.=====

달마가 오던 날 있었던 일...

달마는 중국에 오기로 작정하고 길을 나서따.

달마가 인도에서 출발할 때는 세계 최고의 미남이어따.

근데, 중국에 도착할 때는 세계 최하의 추남이어따.

그 까닭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으로 오려면 열분도 아시다시피 갠지스라는 큰 강이 이따.

그거야 도터진 달마에겐 장난이다.

갈잎을 하나 따서 물 위에 띄우고 일위표탕 경공술로 가볍게 건너따.

〈일위표탕(一葦漂蕩)~갈대 한 잎을 띄워 그 위에 올라타고 강을 건넌〉

근데 한참 오다보니 숲속으로 난 길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 모여 길을 가지 않구 이써따.

달마가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 보니,

굵기가 집채보다 더한 커다란 구렁이가 길을 가로질러 엮어져 죽어 이써따.

굵기가 그러하니 길이는 얼마나 긴지 알 수가 업써따.

사람들은 뱀 머리나 꼬리 쪽으로 돌아갈 수도 업꼬,(올마나 긴지 모르니깐)

넘 굵고 미끄러버 타 넘고 갈 수도 업꼬,

(등신들! 사다리 맹글어 타고 넘어가면 될진데..^^)

다르마가 바라봐도 같잖은 일이어따.

다르마는 결심해따.

잠시 자신의 겹질을 버서놓고 혼만 빠져 나와,

뱀의 머리 속으로 들어갔다.

(무슨 구멍으로 들어갔냐고? 애고 답답! 구멍이 이써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열분들은 아내에게 물어보시라! 아내의 보석상자 속에 있는 보석 알맹이를 아내더러 머릿속에 떠올리라고 해 보시라. 그러면 아내는 보석 모습이 떠올랐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물어 보시라. 당신의 생각이 보석 상자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서 보석 알맹이가 떠올랐나를...아마 "등신"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러면 당신들의 아내는 정상이다.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살다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해서 이상증세를 보이면 바꿀 때가 된 것이니...그렇게들 아시라! 또 바꿀 때는 상당한 재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 이거또 감안해야 할 것이다.)

아까이바구로 되돌아 가서...

달마는 혼만 빠져 나와 뱀의 머리로 들어가서
뱀을 저 멀리 끌어다 놓고 다시 혼만 빠져 나와 돌아왔다.
근데 이게 웬일!???

어느 나쁜 녀이 그 흉측한 껍질을 벗어 놓고,
자기의 그 미남 껍질을 입고 가버린 것이 아닌가?
클나따.
혼만 가 가지구선 포교가 될 수 엄써따.
만약 혼만 가게 되면,
자기야 사람들 말을 알아들을 수 이찌만,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시어따.
(귀신은 우리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귀신 말을 들을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껍질을 바까 입고 갈 정도이면
내공이 거의 자기 수준이란 말 아닌가?
따라가도 잡을 수 없음이 뻔해따.
달마는 미남인 상태로 중국 가는 걸 포기무거따.

달마는 할 수 없이 그 흉칙한 껍데기를 입고 중국에 와따.
그래서 그는 세계 최하의 추남으로 중국에 건너 온 것이다.

지금도 달마도를 보면 그렇게 흉칙한 모습인데,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서 이리 발키는 바이다.

달마도를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까?
더욱더 흉칙하게만 그리면 달마가 되는 것이니,
앞으론 돈 주고 달마도를 사는 일이 없기를 강호제현께 바란다.

추석을 지나며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어릴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 뒤 밭을 지나 산으로 오르다 보면, 밭두렁에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늑대똥이 있곤 했다. 토끼털이 섞여 있는 늑대똥! 그걸 보는 순간 사르륵 소름이 끼치면서 뒷산 자락 숲속을 얼른 쳐다보게 된다. 혹시 아직도 늑대가 웅크리고 있어서 금방 튀어나올 것 같은 무서움에 몸이 떨린다.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르는 우리 할머니께서는 담이 크셨다고 한다. 하루는 한밤중에 염소 소리가 '매에 매에!' 났단다. 다른 식구들은 무서워서 방문도 열어보지 못하는데, 할머니는 당장 달려나가셔서 따라가셨다. 꺾이 많은 늑대는 염소 고삐를 물고 뒷산으로 염소를 끌고 가는 것이었다. 염소는 울면서 버티면서도 힘이 모자라 늑대가 물고 가는 고삐에 매달려 울음만 연달아 내뿜으며 끌려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늑대와 염소를 따라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놈!, 이놈!' 소리를 지르셨다. 이미 염소는 산자락까지 끌려갔으나, 할머니께서 끈질기게 따라가며 팔을 내젓고 소리를 지르시니, 늑대는 할 수 없이 염소 고삐를 놓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염소를 되찾아오신 할머니! 동네방네 소문이 났다. 대차고 간 큰 할머니라고.

아버지께서도 회고하신다. 할머니 손은 그렇게 따끈할 수가 없었던단다. 아버지께서 어릴 때, 냇가에 가 얼음지치기를 하다가 손이 썩 썩 얼어 손가락이 곱아오는 상태로 집에 오면, 할머니께서는 두 손으로 아버지의 양손을 합쳐서 감싸쥐고 계셨단다. 그러면 채 몇 분도 안되어 손이 녹고 손가락이 다 풀렸다고 한다.

그런 할머니께서는 폭정을 일삼던 일제 말기에 돌아가셔서 선산에 묻히지 못하고, 공동묘지 끝자락에 계신다. 성묘길에 둘러보면, 새로 뻗어나간 굴참나무 나뭇가지가 자꾸 햇빛을 가린다. 낮으로 굴참나무 가지를 치며, 쪼꼬만 햇빛 한 자락이라도 더 비치게 해보려고 애를 쓴다.

"할머니! 손자들이 이렇게 장성하여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둘러서니 훈훈하시죠? 비록 할머니 두 손처럼 따뜻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할머니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도 술을 한잔 따릅니다. 할머니의 증손, 막내 손자의 아들들이 모두 잘 자라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희들 후손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히 잘 계세요. 우리 할머니!"

딸나무와 쇠먹이

참말 옛날에는 산에 나무도 거의 없었다. 나무만 없는 게 아니라, 풀도 없고 낙엽도 없었다. 밥해 먹고, 쇠죽 끓이고, 군불 때고 하는 걸 모두 나무나 낙엽이나 풀을 베서 하다 보니 남아나는 게 있을 리 없었다. 모두들 어린 나이이지만 학교를 다녀오면 소를 끌고 산이나 냇가로 풀을 뜯어 먹이러 가야 한다. 그냥 소만 먹이는 게 아니고 풀도 한 망태 베 가지고 와야 한다. 어른들이야 들에 가서 농사일을 해야 하니 소먹이는 건 아이들 차지다.

산으로 소를 먹이러 가면, 쇠고삐를 뿔에다 감아 끌리지 않도록 해 가지고는 풀어놓는다. 소는 제 마음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아이들은 지고 간 지계를 지고는 소나무 낙엽이 떨어진 곳을 찾아다니다가 조금이라도 풀이 소복하게 자라 있는 곳을 발견하면 지계를 벗어놓고 갈퀴로 낙엽을 긁는다. 낮으로 풀을 베서 뭉쳐가며 굵은 갈비를 합쳐 묶어 지계에 얹는다. 낙엽이 거의 없다보니 한 짐 긁고 베려면 몇 시간이 걸린다. 나무를 다 하면 소도 풀을 거의 다 뜯어먹었다. 그러면 소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소는 배가 불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른들에게 혼이 난다.

더러 발정을 한 암소가 그 중에 섞여 있어 아이들이 신경을 곤두세운다. 수소와 암소가 교미를 하게 되면, 원래 암소 가진 집에서 수소 집에 쿵을 한 말 주었다. 힘이 빠진 수소를 기운 차리게 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산에서 풀을 뜯다가 소들끼리 어울리게 되면, 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소만 야위게 된다고 어른들이 꾸중을 하기 때문이다. 발정한 암소를 데리고 온 아이는 자기네 암소

를 그냥 풀어놓는다. 그러면 수소를 데리고 온 아이는 교미를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의 수소를 나무에 묶어 놓는다. 묶여진 수소는 풀도 마음대로 뜯지 못하고, 발정한 암소 옆으로 가기 위해서 마구 날뛰는다. 그러다가 가끔 고삐가 풀려 수소가 뛰어다니는 수가 있다. 소가 산등성이를 넘어 달아나면 아이들은 소를 붙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한다. 그래도 소는 항상 아이들에게 붙들린다. 수소는 풀도 많이 먹지 않고 암소만 그리워하고, 아이들은 풀을 더 뜯기려고 애를 쓰고, 승강이가 벌어진다.

이렇게 지고 온 낙엽이나 풀은 밥해 먹는 데 쓰고, 쇠죽을 끓이거나 군불을 땔 나무는 따로 준비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타면서 방을 덥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뜻한 방이 드물었다. 노인들은 방바닥이 뜨거워야 일하면서 얻은 근육통이 사라지고, 지친 삭신이 녹는다. 그런데 땔나무가 부족하다보니 방을 덥힐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 노인네들이 거처하는 방은 으레 외양간과 붙어 있는 사랑방이다. 쇠죽을 끓이다보니 방은 늘 절절 끓게 마련이다. 노인들은 이 방에 모여 앉아 옛날을 이야기하며 겨울을 냈다.

연탄, 무연탄, 구공탄, 십구공탄, 이십칠공탄

땔나무를 대신할 대체 연료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무연탄은 그 이름같이 연기도 나지 않고, 하루 종일 방을 덥힐 수가 있으며, 밥이나 국도 언제나 끓여 먹을 수 있는 연료였다. 사람들은 무연탄을 줄여서 그냥 연탄이라고 불렀다. 이 때부터 집집마다 연탄을 쌓아놓는 조그만 창고가 필요했다. 온 겨울 동안 땔 수 있는 연탄을 들여놓아야 월동 준비가 옹골쳐 되는 것이다. 서울의 달동네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시골구석 어디를 가나 구공탄을 사용했고, 구멍이 열 아홉 개라서 '십구공탄'이라고도 불렀다. 연탄을 갈아넣을 때는 위의 것을 집어내고, 아래의 다 타버린 연탄재를 꺼내야 한다. 자주 아래위의 연탄이 들어붙어서 잘라야 했는데, 연탄 집게로 잘 잘리지 않을 경우는 못쓰게 된 식도가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연탄의 연기는 아주 무서운 것이었다. 일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 틈으로 스며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옛날 집은 허술하게 지어진 집들이 많아서 청소깍(청솔가지)을 태우면, 방바닥의 갈라진 틈으로 연기가 술술 올라오는 일이 많았다. 이런 방 구조를 고치지 않고 아궁이 구조는 그냥 둔 채 연료를 연탄으로 바꾸어 사용하다보니 연탄개스에 중독되는 일이 많았다. 중독이 되면 머리가 터져 나가도록 아픈 것은 물론이고, 간혹 반신불수나 식물인간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죽는 일도 많았다. 다 키운 아들 딸이 멀리서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혹은 회사에 취직하여 방을 얻어 자취를 하다가 비명횡사하는 일도 많았다. 마당에서 잘 자라던 감나무도 이 개스에 취하면 잘 자라던 감이 다 빠져버린다.

산골 마을은 눈이 많이 오면 연탄 배달이 되지 않아 옆집 것을 빌려다 때기도 하였다. 소중한 연탄이기 때문에 두 장 정도를 가져오려면 연탄 가운데 구멍에 새끼를 꿰어 밀은 매듭을 해서 안 빠지도록 해서 들고 오는데, 들고 오다 눈길에 미끄러져 깨기라도 하는 날이면 부모님께 야단을 맞게 된다. 깨진 연탄이라고 해서 버리지도 않았다. 어째어째 잘 붙여서 아궁이에 넣어 불을 붙이면 성공이고, 완전히 깨지더라도 덩어리들을 쓸어담아 두었다가 연탄집에 반납하면, 새것 한 장을 대신 주곤 하였다. 도시에서도 연탄은 가지각색으로 소용되는 데가 많았다. 군고구마 장수들이나 호떡 장수는 물론, 포장마차에는 지금까지도 이 연탄이 사용되고 있다.

연탄불은 한 번 붙여서 아껴 때면 하루에 한 장밖에 들지 않을 만큼 오래 가지만, 불을 붙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불쏘시개를 한 바가지나 집어넣고 불을 붙인 뒤, 연탄을 조심스레 올려놓는다. 매캐한 연기가 나며 연탄의 시커먼 아랫도리가 발갛게 익어오면, 아궁이에 집어넣고 불구멍을 반쯤 열어놓는다. 젖은 연탄은 불이 잘 붙지 않으므로 장마철에는 외양간에 비 새는 것을 그냥 두면서도, 연탄 창고에는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을 이고 또 이고 하였다. 이러한 불편을 크게 해소한 것이 '착화탄'이다. 두께가 이삼 센티밖에 안되지만, 성냥불로도 불을 붙일 수 있고, 불 붙은 착화탄을 아궁이 밑에 넣고 그 위에 연탄을 올려 놓으면 어김없이 연탄에 불이 붙는 것이다. 꺼진 연탄불을 곧바로 되살릴 수 있게 한다고 '번개탄'이라고도 불리었다. 그래서 집집마다 번개탄을 여남은 개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동네 구멍가게에는 반드시 이 착화탄을 팔기도 하였다.

대도시의 아주 큰 국밥집에서는 십구공탄으로는 큰 가마솥을 끓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십구공탄 세 개가 동시에 타는 큰 화덕이 있기도 하였지만, 연탄 갈아넣기가 불편해서 개발된 것이 이십칠공탄이다. 보통 연탄과 키는 같지만, 넓이는 두 배나 된다. 이것을 피우면 아무리 큰 가마솥이라도 부글부글 끓일 수 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수퍼 울트라 엽기 캡송 나이스 짱 액션 브라더스 메가톤 급'인 연탄이었던 셈이다.

새 소리

새의 울음소리는 정말 기이하다. 김소월은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아우래비'라고 했다. 평안도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월은 시로 표현하였다. 접동새의 울음소리가 '아우야 오라비야!'하는 말과 닮아서 그런 이야기가 전해 오는 것이리라.

열 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남기고 엄마가 세상을 뜨자 의붓엄마가 들어왔는데, 전혀 소생들을 미워하며 밥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둘째인지 셋째인지 딸 중에서는 맏이 되는 처녀가 밥 먹을 때마다 오라비와 동생들에게 자신의 밥을 덜어주며, '자기는 이미 먹었다'고 하다가 영양실조로 그만 죽었다고 한다. 죽은 뒤에도 남아 있는 오라비와 동생들이 걱정되어 저승에 가지 못하고 접 동생의 혼이 되어 집 가까이 와서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아우래비, 아~우래비'이다. 즉, '아우아 오라비야'라고 부른다는 것이다.(어떤 이는 이 새 울음소리가 '호~래비쫓'으로 들린다고도 했다.)

참말 옛날에는 산새도 많았다. 산을 오르면 여기저기서 갖가지 소리로 우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강 건너 절벽에 구구구구하며 사는 뱀비둘기, 피쫄쫄 우는 피꼬리, 부엉부엉 우는 부엉이, 소쩍소쩍 우는 소쩍새, 쑥쑥쑥 우는 쑥새, 호호호호 하며 높은 음에서 차차 내려오며 꼭 네 번씩 끊어서 우는 휘파람새, 피조오치 피조오치 하며 우는 흥년새(논에 피가 많다는 뜻, '삐조오치'라고 운다는 사람도 있다.~울음소리와 연상되는 뜻은 그대들의 상상에 맡기노라.) 새 등 우리 산천에는 아주 희귀한 새가 많았다. 버범버범 버라고 우는 너엄마보~지 새도 있다. 촌 아이들은 이 새 울음을 아주 희안하게 상징화시켰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새들도 아주 깊은 산골이 아니면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많은 농약 살포와 생태계의 오염 및 파괴로 수가 점점 줄어들어 희귀한 새가 되고 말았다. 뒷산 소나무와 참나무가 뒤섞여 있는 숲엔 봄부터 가을까지 왜가리가 떼를 지어 살고 있었다. 그 숲을 지나려면 새가 앉아 있지 않은 나무를 골라 지나야 했다. 모르고 지나다 보면 왜가리가 찔끔 갈기는 물똥을 머리에 뒤집어 쓰기 마련이다. 개구리나 올챙이 미꾸라지 등을 먹고사는 놈이라 비린내가 핵 끼치는 물똥이었다. 이 왜가리도 예외 없이 다 사라졌다. 그냥 서너 마리만 명맥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 강물이나 연못이 오염되면 물고기가 오염되고, 그것들을 잡아먹고 사는 물새는 천 배나 오염이 된다고 한다. 강물을 길어다 마시던 일은 이제 거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

구담 앞 낙동강에는 강 중간에 풀로 덮힌 조그만 섬들이 많다. 농민들은 고민이다. 그 섬들이 홍수 때 물흐름을 막기 때문에 근처 저지대는 강물이 넘쳐 농작물이 잠기고 만다. 그래서 강바닥을 준설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생태보존협회에서는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그 섬들을 그냥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 참 어려운 일이다.

독새풀 따먹기

가을 보리를 갈지 않은 논다락에는 봄철 동안 독새풀(표준어 : 독새풀)이 자란다. 논배미마다 무릎까지 오는 키로 뽕뽕하게 자라는 독새풀은 모심기가 시작되면 그냥 한꺼번에 갈아엎어 버려 거름이 된다. 모심기를 위하여 논을 갈아엎기 전, 그 독새풀은 훌륭한 쇠 먹이다. 겨울 동안 짚을 썰어 쇠북을 끓여 먹다가 봄이 되면 사람들의 춘궁기와 함께 소들도 춘궁기를 맞는다. 이때 주로 먹이는 것이 독새풀이다.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오면 망태를 메고 들에 나가 풀(풀)을 뜯는다. 양도 많고 비탈지지 않아 베기도 좋은 독새풀은 아이들의 망태에 가득가득 채워진다.

그러나, 그 많은 풀을 두고도 농땡이 아이들은 땅바닥에 그려 고누나 두고 논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도 풀을 뜯지 않고 놀기만 논다. 그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풀을 다 뜯은 아이들은 들길로 모여든다. 농땡이들은 이때를 노려 내기를 건다. 자기는 한 움큼만 풀을 베어 들고 따먹기를 하자고 한다. 내기 도구는 낫이다. 십여보 저편에 금을 그어 놓고 낫을 핵 돌리며 던져 낫이 바로 서고, 또 금에 가까이 꽃히면 한 움큼씩의 풀을 따게 되는 것이다. 농땡이일수록 낫 던지기를 더 잘 한다. 부지런한 아이들은 이 내기에 한결같이 저서 어둡도록 풀을 새로 뜯어야 하는 것이다. 농땡이들은 실컷 놀면서도 풀을 잔뜩 뜯어 콧노래를 부르며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간다.

그날도 학교를 다녀와서 풀을 뜯으러 갔다. 농땡이들은 자기 실력만 믿고 역시 풀을 뜯지 않았다. 부지런한 아이들은 곧 풀 따먹기에 저서 새로 풀을 베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성실하게 낫질을 하였다. 부지런한 아이들의 망태에 풀이 그득하게 채워질 무렵, 의외로 봄 소나기가 마구 뿌리기 시작하였다. 이날만큼은 풀 따먹기 시험이 없을 수밖에. 부지런한 아이들이 자기 망태를 메고 집으로 달음질을 하는 동안에도 농땡이들은 그 비를 두드려 맞으면서 풀을 뜯어야만 했다. 빈 망태로 돌아오는 아들에게 저녁밥을 줄 어머니는 없기 때문이었다. 하늘은 이렇게 늘 없는 듯이 있다가도 가끔 성실하지 못한 아이들을 나무라는 것이었으니, 우리가 어릴 때 자연으로부터 배운 참 값진 교훈이었다.

가설 극장

시골 농촌에서는 영화를 보기가 쉽지 않았다. 교통이 불편해서 영화관이 있는 대도시로 나가기도 어려웠지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두어 시간 느긋하게 앉아서 영화를 감상할 여유는 거의 평생토록 없었다. 그래서 가설극장 업자가 가끔 낡은 필름을 가지고 찾아와, 냇가 모래밭에 말뚝을 박고 천막을 두르고 한물 간 영화를 상영하면, 십 리나 되는 먼 곳에서도 남녀노소 마음을 설레며 찾아가는 것이다.

기계에 굽히고 닳은 너무나 낡은 필름을 돌리기에 영화 화면은 항상 비가 내리기 마련이고, 스피커 성능도 나빠서 왕왕거리기만 할 뿐, 배우들의 대사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기 마련이다. 거기다가 발전기를 돌려 기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발전기가 꺼지면 암흑 천지가 되고 여기 저기서 야유의 소리가 터져 나온다. '돈 물어내라!'는 고함소리가 마구 쏟아진다. 영화 한 편 보는 동안 대여섯 번이나 끊어지는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가설 극장의 압권은 입장할 때의 상황이다. 아줌마들은 아기를 업고 입장해도 표 한 장만 끊으면 되므로 다 큰애도 업고 입장한다. 옆 집 아줌마는 초등학교 6학년 짜리를 업고 입장했었다. 그러면 표받는 아저씨는 아기를 들썩운 오바코트를 들춰보고는 "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라고 볼멘 소리를 한다. 그러면 아줌마도 지지 않는다. "아가 업힌 채로 잠든 걸 보마 아직 알란 줄 모림니까?"라고 응수한다. 이때 업힌 아이는 잠들어 있는 체를 한다. "첻!" 소리와 함께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면, 싱그레 웃으면서 입장을 한다. 이렇게 억지 공짜로 보는 영화가 더 재미있고 쫄깃했던 것이다.

영화가 클라이맥스로 치달으면 관객들을 둘러싼 검은 장막이 걷히기 시작한다. 업자들은 영화가 끝남과 동시에 되돌아갈 차비를 하는 것이다. 흔히 가을걷이가 끝난 다음이라야 가설극장이 열렸기 때문에 막이 걷히면 찬바람이 관객들을 마구 후려친다. 그래도 코트 깃을 세우고 끝까지 영화를 본다. 돈 준 것이 아깝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막 좀 빨리 걷지 말라고 소리를 친다. 그래도 막은 걷힌다. 이래서 입장료가 없어서 장막 안에 입장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냇가에 앉아 있다가 영화 끝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앞의 줄거리를 바빠 묻게 되고, 소중한 경험을 골고루 나눠 갖게 되는 것이다.

다른 술자리에 갔을 때는 입장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크게 영화 이야기를 떠든다. 그래서 '서울 가본 놈보다 안 가본 놈이 더 잘 안다.'는 속담이 생겼는지도 모를 일이다. 항상 술자리에서 이야기되는 영화 내용은 실제보다 과장되어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가 더러 해피엔딩이 되는 수도 많았다.

또한, 집으로 돌아가는 밤길에는 처녀 총각들이 부모들 몰래 사랑을 속삭이기도 했다. 이래서 눈이 맞은 처녀 총각들은 뒤주의 쌀을 퍼내 며칠 뒤 단뽕집을 싸서 서울로 서울로 달아나기도 했다. 달아난 처녀 총각 중 대부분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돌아온다. 순박한 시골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등치고 간 내 먹는' 도시 생활을 견디어 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끔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십여년 뒤 크게 성공해서 선물 보따리를 손에 손에 들고 자랑스런 모습으로 나타나 마을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들의 무용담에 다시 이집 저집들의 처녀 총각들이 술렁거리고, 며칠 뒤 가출이 늘곤 하였다.

우물에 재뿌리기, 쇠똥 뿌리기

'생피 붙다'란 말이 있다. 옛날 농촌 마을은 거의 집성촌이었다. 오래토록 한 마을에서 같은 성씨받이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앞집은 큰집이고, 옆집은 당숙네. 이런 식으로 사는 동네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게 앞집 4촌이고, 들에 나갈 때나 장에 다녀 올 때 만나는 것이 6촌이다. 아무리 인척간이라고 하더라도 처녀 총각이 만나다 보면 정이 들게 되고 사랑에도 떠러 빠지게 된다. 이렇게 친척간에 사랑이 움터 서로 깊은 애정이 싹 트고 보면 헤어질 수 없게 되는 사이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생피 붙는다'고 한다.

양가 어른들이 알게 되면 불잡아 가두고는 지게 작대기로 두들겨 맞기도 하나, 사랑의 불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것이니, 두 사람은 어른들 몰래 야반도주를 하게 되는 것이다. 동네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것은 마을 당신(堂神)의 노함이라 하여 집안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방책을 세운다. 방책이 세워지면 바로 실행에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참 재미있었다.

동네 공동 우물에 재를 뿌리거나 쇠똥을 집어넣고 우물 둘레에 원새끼로 끈 금줄을 친다. 새끼줄 중간 중간에는 하얀 천을 끼워 멀리서도 얼른 알아보게 한다. 어른들은 당목(堂木) 밑에 술과 고기와 떡을 차려 놓고 고사를 지낸다. 당신(堂神)의 노여움을 풀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한다. 온 동네 사람들이 보름동안 고기도 먹지 않고, 혼인 예식도 치르지 않고, 조신하게 지내는 것이다. 우물물은 물론 보름 동안 길어 먹지 못한다. 보름이 지나면 금줄을 걷고 우물물을 퍼내고 우물 밑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다시 길어 먹도록 했다.

정월 대보름도 동네 당목 밑에 음식을 차려 놓는데, 자정이 넘기 전에 그 음식들을 가져다 먹으면 큰일이 난다. 아이들은 보름날 나즈막한 산에 올라가 달불을 놓고, 쥐불놀이를 하고 놀다가 자정이 지나면 당목 밑으로 몰려가 차려 놓은 고기와 떡을 나누어 먹곤 했다. 자정 이전에 음식을 가져가는 아이들이 있을까봐 어떤 해는 어른들이 지키기도 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겁을 내도록 예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다.

"당목 밑에 차려 놓은 음식을 자정 전에 먹으면 호식(虎食)을 당한단다."

우생학적으로 인척간 혼인은 해롭다고 한다. 나쁜 말로 하면 '근친상간'인데, 기형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많아서 의학계에서도 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8촌을 벗어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여간에 실수든 의도적이든 혼인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사생아가 되고 만다. 혼인 상태가 아닌 부모에게서 난 사생아는 자기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세상을 살아가

는 데 유형 무형의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전국 유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동본 혼인을 무효라고 하는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여성 단체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유림이나 여성계의 활동에 따라서 혼인금지 한계가 6촌이 될지 10촌이나 12촌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다.

사람 외에도 세상에는 누군가 살고 있다.

옛날 꽃감은 다 말리면 색깔이 새카맣게 된다. 그러나, 요즘 꽃감은 그런 것이 오히려 값이 없다. 발그스름하게 말린 꽃감이 인기가 더 좋고, 값도 더 받는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을 떠올려 보면 그게 옳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맛으로 따지면 옛날 꽃감이 더 좋다. 옛날에는 서리가 온 후에 감을 따야 맛이 달다며, 느긋하게 서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일이 흔했다. 그래야 홍시를 만들어 먹을 때에 단맛이 더 강했던 것이다. 설탕은 아예 없었고, 꿀은 아주 부잣집에나 있었으니, 인절미나 시루떡이나 절편을 단 것에 찍어 먹으려면 홍시밖에 없었다. 그러니, 서리를 맞춘 뒤에 감을 따서 보관해야 아주 달콤한 홍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꽃감을 만들기 위해 감을 좀 일찍 따다. 시퍼런 색깔이 아직 다 가지지 않은 채로 마구 따다. 그렇게 딴 땡감으로 만든 꽃감이라야 시장성이 높다. 참 많이도 변했다.

하지만 그게 큰 문제는 아니다. 촌에는 노인들만 남아 있어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기가 어렵다보니, 나무 채로 감을 팔아버린다. 전문적으로 감을 사서 꽃감을 만들어 파는 상인들은 감이 곧 돈이기 때문에 감을 깡그리 다 따버린다. 상인들이 감을 따가고 난 뒤에 감나무를 보면 감이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다. 예부터 일러오던 까치밥까지 남겨놓지 않는 것이다. 깊은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가 하늘을 찌르는 을씨년스런 광경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감나무에 한두 개의 홍시가 달려 있는 것이 참 보기 좋다. 그 얼마나 넉넉하고 풍요스런 풍경인가? 감나무에 감이 하나도 달려 있지 않으면, 왠지 인정도 메말라버린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조상들은 새나 짐승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어떤 농작물이든지 깡그리 다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새나 짐승도 입이 있는 바에야 먹어야 살아갈 것이 아닌가? 정말로 그 먹이가 있어서 옛 동물들이 살아남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조상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그 동물들을 살려냈을 것이다. 우리 사람 말고도 다른 동물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씨가 사라진 것이, 나눔의 큰 의미가 희미해지고, 각박해져 가는 인심과 함께 못내 아쉬울 뿐이다. 가장 미소(微少)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실 구세주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지 걱정이다.

물론 까치도 이제 반가운 새는 아니다. 사과 배 과수원에 와서 과일을 마구 쪼다. 그 까치를 막으려고 과수 위예다가 그물도 치지만 조금만 틈이 있어도 헤집고 들어와 과일을 마구 쪼는 것이다. 어떤 과수원은 아예 여름부터 과수원 곳곳에 스피커를 달고 라디오 방송을 크게 틀어 놓는다. 사람 소리에 겁을 먹고 까치가 달려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까치는 그게 소리일 뿐,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안다. 정말 까치도 영악한 새가 되어 버렸다. 정부에서는 까치 사냥을 아예 허가해 주었다. 한전에서든 전봇대 위에 까치집 지은 걸 알려주는 아이들에게 연필과 공책을 나눠준다. 좋은 소식을 미리 알려주는 새에서 미운털 박힌 새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냥당하는 까치를 보며 격세지감을 느낀다.

영동할미 마음이나 시어머니 마음이나

거 왜 음력 이월 초가 되면 곳은 비 이리저리 흠날리거나 바람 몹시 부는 날 있지요. 이 날 일년 내내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영동할미가 동네마다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께선 떡이랑 강정이랑 수정과랑 잔뜩 채려 장독대 위에 자정쯤 해서 내다 놓고 빌곤 했었지요. 그래야, 우순풍조(雨順風調) 풍년 든다고 조금치도 의심 없이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소반은 해가 뜰 때까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린 마음에, 이 날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지요. 비가 와야 소반을 빨리 치우고, 그걸 가지고 들어와선 빨리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비가 오는 날은 그 소반을 금새 가지고 들어와도 할머니께선 그냥 놓아 두셨지요. 만약, 바람부는 날 음식 담긴 소반을 채 한 시간도 안되어 가지고 들어오면 할머니께 크게 야단 맞게 되지요.

하지만, 비 오는 날 우리 할머니가 너그러우셨던 건 까닭이 딴 데 있습니다.

영동할미가 음식 먹으러 올 때, 비가 오면 며느리를 데려 오고 바람 불면 딸을 데려 오는데, 바람에 치맛자락 날리는 건 멋지니까 그런 날은 딸을 데려오고, 비오는 데 저고리가 흠뻑 젖는 건 너무 떨리고 기분이 칙칙하니까 며느리를 데리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 저고리야 젖을수록 샘통이다.' 뭐 이런 거지요. 자기도 젖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영동할미가 뭘 못 먹고 가도 화를 안 낸다 이 말씀이지요. 즉, 자기 입에 뭇이 안 들어가더라도 며느리 입에도 먹을 게 안 들어가면 기분 짜진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바람부는 날은 딸을 데려 오니까, 딸이 배불리 먹어야 엄마 기분이 좋아지므로, 음식 소반을 동틀 때까지 치워서는 안되는 거예요.

우리 할매나 영동할미나, 딸은 이빠하고 며느리를 미워하고 괴롭히려는 심정은 비슷하다는 거지요.

사람 마음이나 귀신 마음이나 다 그렇다는 거지요 뭐.

봄 소풍

초중고 소풍이 다 소풍이지만, 소풍 가기 전의 설렘과 준비 등의 기억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초등학교의 소풍이 소풍다운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4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시골은 참말 가난했었다. 평소 싸가지고 다니던 도시락은 알미눔으로 된 건 아주 귀했고, 우리 어머니들은 늦주발에 보리밥을 담고 밥 위에 간장 종지를 얹어서 된장에 넣어뒀던 무장아찌를 잘게 썰어 담아 주셨다.

하지만 소풍날은 이렇게 싸줄 수가 없는 것이다. 아이들 소풍날이 다가오면 어머니는 보리쌀을 한 말 이고 장에 나가신다. 그걸 팔아 햇김도 사고 노란 무도 사고 멸치도 사서 오신다. 집에서 키운 당근과 시금치도 데쳐서 소풍날 아침에 김밥을 말아 주신다. 달걀 서너 개와 밤도 한 줌 삶고 찌서 같이 넣어주신다. 담임 선생님 드릴 사이다도 한 병 넣어주시면서 잘 놀다 오라고, 위험한 데 가지 말라고 당부를 여러 번 하신다.

소풍 장소는 늘 학교 근처 십여 리에 있는 허름한 절이었다. 9시 경에 학교에서 출발하여 1시간 반 정도 걸려 절에 도착하면 등에는 땀이 나고 목도 말라 샘물이 그렇게 달콤했다. 시골에 있는 절은 스님들도 몇 분 계시지 않아 항상 고즈넉했다. 그러나 손때 묻은 마루, 몇 백 년 풍우에 시달린 대웅전 기둥, 땃돌 위에 벗어놓은 큰스님의 뽀얀 고무신 한 켤레, 향적당 뒤로 돌아가면 조출하지만 깨끗이 닦여진 장독대의 향아리들. 이런 것들은 그냥 헌 것이라서 더 정이 가고 때묻은 것이라서 한번 더 만져보고 싶어진다. 이렇게 돌아보고 절 밑의 모이라 했던 풀밭으로 내려온다.

반 별로 동그렇게 모여 앉아 수건돌리기도 하고 남학생들은 한쪽 다리를 들어올려 발목을 손으로 잡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닭싸움도 하고 여학생들은 조그맣고 예쁜 공깃돌을 주워 공기놀이도 한다. 놀이를 아주 잘 하는 여학생들은 거의 신기에 가까울 만한 솜씨를 보인다. 또 저쪽 편에서는 노래 소리도 들린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집집마다 사진기가 없던 시절이라 동네 사진관 아저씨가 소풍날마다 따라 오시곤 했다. 별별 몸짓을 다하며 사진 찍는 요즘 아이들과는 달리 사진 찍는다 하면 으레 차렷 자세가 되는 시골 아이들! 며칠 뒤 사진사 아저씨가 학교에 찾아오면 사진 값을 내고 자기 사진을 찾는다. 비록 흑백 사진이지만 그렇게 귀중할 수가 없었다. 집에 가지고 가서 대청마루 벽에 걸린 사진들 속의 이런저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들 누나들 사진 사이에 어떻게든 끼워 넣고 매일같이 들여다보곤 했었다.

소풍날 따라 오는 사람 중에는 아이스케키 장수도 있었다. 그 특유의 목소리에 끌려 어머니께 얻어온 몇 푼의 돈을 자꾸 꺼내보게 된다. 그래도 소풍날은 전혀 안 사먹고 돌아갈 수는 없다. 친구들도 쭈뼛거리며 동전을 꺼내 슬슬 사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참던 아이들도 같이 사먹을 수밖에 없다. 사카린을 넣고 색소를 넣어 만든 불량식품이 뻥한 아이스케키는 그런 대로 별스런 맛이 있었다. 그래도 아주 질긴 고학년 아이들은 아이스케키가 녹아갈 때를 기다린다. 소풍이 끝나갈 무렵이면 한 개 십 원 하던 아이스케키가 두 개 십 원으로 값이 내려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 뿐이 아니다. 풍선 장수도 따라 오고, 솜사탕 장수도 따라 온다. 십 원에 두 개 쯤 주는 풍선을 사서는 볼을 볼록하게 하면서 열심히 불어서는 배구를 한다. 공이 귀했기 때문에 가벼운 풍선으로 배구 놀이를 하면 누구나 다 선수가 된다. 한편 솜사탕 아저씨가 자전거 페달을 돌리며 설탕을 한 숟갈 끼얹으면 큰 통 안에서 설탕은 실처럼 풀어져 솜사탕이 된다. 막대기에 매달린 솜사탕을 빨아 먹으면 그 달콤함에 혀가 통째로 그냥 녹아버리는 느낌이기도 했다.

점심 시간이 되어 친한 아이들끼리 돌아앉아 가지고 온 도시락을 편다. 희귀한 음식은 아니지만 집집마다 어머니께서 온갖 정성을 다해 싸주신 것이라 평소보다 갑절이나 맛이 좋다.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선생님들 앉으신 자리를 훑길 돌아본다. 어떤 애들은 선생님께 담배도 한 갑 가져다 드리고, 집에서 담아온 농주도 한 병 가져다 드리는데, 사이다 한 병을 가져다 드리기가 쑥스럽고 거기까지 갈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다가 그만 뚜껑을 따서 스스로 마셔버리기도 했다. 집에 와서 어머니가 물으시면 갖다 드렸다고 어떻

게 거짓말을 하나 고민도 되지만, 우선 달콤한 맛이 좋아서 다 마셔 버린다. 그리고 집에 돌아갈 시간에는 그런 일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만다.

보리깜부기와 비누

보릿고개로 표현되는 고달픈 봄철. 지금처럼 과일이 흔한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과일을 재배하는 것도 아니어서 양식 걱정이야 어른들 몫이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먹을 것이 없었다. 등하교 길에 송구 벗겨 먹고 찔레순 따먹다가 4월을 보낸 아이들은 벌에 쏘여 가면서 아카시아 향기에 젖어 아카시아 꽃을 따먹으며 5월을 냈다. 녹음이 점점 짙어져 6월이 되면 들판에는 보리와 밀이 익어간다. 까탈복숭아도 아직 익기 전이고 산딸기도 한 달은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마땅히 군것질 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냥 유월을 지나는 아이도 또한 없었다. 찾으면 항상 먹을 것은 있기 마련이었다.

여기 저기 못자리가 만들어지고 보리가 누렇게 옷을 갈아입으면 보리밭에는 보리깜부기가 생긴다. 깜부기병(〈smut〉은 진균(眞菌)의 담자균류(擔子菌類)에 의한 식물병으로 병에 걸린 이삭은 처음 회색의 얇은 피막(被膜)에 싸여 출수한 후 피막이 터지면서 그 속에서 검은색의 가루가 날아 흩어지고 결국에는 중축(中軸)만 남게 된다. 맥류에 발생하는 병원균은 주로 Ustilago속(屬)이며, 귀리·조·보리·밀·옥수수 등에도 발생한다. 방제법(防除法)으로는 검은색 가루가 날리기 전에 검은 이삭을 뽑아 태우거나, 무병지에서 채종한 종자를 사용해야 하고, 종자는 냉수온탕침법에 의하여 소독한 후 파종하고 침투성 살균제 비타박스로 물속에 담가 소독하는 법이 최근에 외국에서 소개되고 있다.)이 심한 해에는 보리밭 여기저기가 몇 평씩 시커멓게 변해 있기도 했다. 아이들은 이것을 마구 꺾어서는 남남 먹는다. 이빨이 새카맣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입술까지도 깜부기 가루가 묻어서 시커멓게 되고, 온 얼굴에도 검댕이 묻는다. 깜부기를 비벼 친구들의 얼굴에다 문질러 발라주는 개구쟁이들도 많다. 이렇게 보리밭을 몇 다랑이 지나다 보면 온 아이들이 전부 새까맣다. 더운 계절이어서 물들인 옷이 아니라 거의 흰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깜부기 가루가 옷에도 마구 발려져서 옷도 엉망이 된다. 옷을 벗어서 탈탈 털어도 보지만 털리지는 않는다.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께 꾸중 들을까봐 매매 털지만 아무래도 가루가 남기 마련이다. 이런 상태로 집에 가다가 초여름 소나기라도 맞는 날이면 더욱 가관이 된다. 깜부기 색깔은 감물이 묻어 퇴색된 것처럼 얼룩이 진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비누도 없던 그 시절에 옷을 빨아 눈이 부시도록 하얗게 만드신다. 벼짚 지붕 처마 물이나, 벼짚을 태운 잿물, 귀하게 구한 소기름에다가 왕겨를 짓이겨 만든 시커먼 사분(비누의 경상도 방언)을 쓰거나 해서 그 옷들을 깨끗하게 만드신다.

비 오는 날 큰 독을 처마 밑에 받쳐 놓으면 처마 물이 떨어져서 가득 고인다. 이 물을 버리지 않고 두었다가 빨래 할 때 썼으니, 그것은 연수(軟水)를 만드는 방법이었다. 벼짚을 아예 태우는 방법도 있다. 벼짚을 태워서 그 재를 고운 짚을 깔아놓은 딱시루에 얹고 냇물을 퍼와서는 고이고이 바가지로 퍼붓는다. 그러면 밑에 받친 항아리에 잿물이 내려진다. 이것이 정말 잿물로 서양에서 들어온 양잿물과 구별되는 것이다. 소기름에다 왕겨를 짓이겨 만드는 비누는 상당히 더 발달된 형태로, 빨래할 때 왕겨가 빨랫감에 묻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이전보다는 힘을 덜 들이고 빨래할 수 있는 용품이었다. 그렇지만 사실 빨래를 하얗게 만드는 힘은 다른 데 있었다. 아무리 좋은 비누를 쓴다 해도 어머니들께서 빨래터에 앉아 빨래 방망이로 힘들여 두드려 내는 그 힘이 아니었다면, 또한 냇가 모래톱에 내려 쪼이는 그 강렬한 햇볕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때가 까맣게 찌든 빨래들이 하얗게 될 수 있었으랴.

그러나 어머니들의 그런 정성에도 빨래가 되지 않는 얼룩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감물 흔적이었다. 유월이 되면 감꽃이 피고 또한 떨어진다. 감꽃을 주워 바로 먹는 아이도 있었지만 벼짚 해기에다 끼워 길게 늘여서 들고 오는 아이들도 많았다. 동생 생각에 다 먹어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유월 감은 먹을 수 있는 감이어서 약간 떫은맛이 나지만 그런대로 먹을 만한 것이었다. 그런 뒤에 다시 한 달이 지나면 감이 빠지기 시작한다. 감나무는 해걸이를 하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해는 반도 더 빠진다. 이 팽감을 주워서 조그만 항아리에 넣고 삭힌다. 그러면 떫은맛이 사라지고 달콤하게 변한다.

먹을 것이 귀한 시절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늘 먹을 것이 있긴 있었던 옛날이다.

인정의 봄나물

돌이 할매는 닳아빠지고 이빨이 나간 조그만 손칼을 꺼내 들고 나물 담을 보통이를 허리에 두른 채 순이네 집으로 오셨다. 아직 동산 그림자가 마을 어귀까지 뻗어 있는 새벽녘이다.

"순이 할매! 아직까정 준비 덜 됐는감? 해가 쏙구녁을 찌르도록 잔단 말가?"

"아따, 거 아적까정 해도 안 뻗구마는 이키나 호들갑을 떠는 기 거 누고?"

"오늘 나물 뜯으로 가자 안 했나, 할망구야."

"그래 지금 나간다, 고마 감 질러라이. 절므이들도 다 왔나?"

"아, 우리가 먼저 나서서 부르로 가야제, 절므이들이 우애 먼저 일어나겠노?"

"그래, 가보자. 인자 마 안 일어났겠나?"

둘이 할매와 순이 할매는 비슷한 차림을 해가지고선 대여섯 살 혹은 여남은 살 아래인 젊은 아낙네들을 부르러 가신다. 미리 약속을 해 놓은 터라 젊은 아낙네들도 벌써 식구들 아침밥을 다 해 먹이고 난 뒤이다. 입은 몸뻘(일본어 もんぺい ; 일바지)도 모두들 색깔이 거의 비슷했다. 검은 색이나 감물을 들인 색이나 회색이나 뭐 그런 것들이었다.

모두들 오리 쭈름 걸어서 산자락이 냇물을 만나 경사가 완만한 언덕으로 갔다. 갯가의 버들개지가 잎을 틔운 뒤 한참이어서 나물은 많이 돌아 있었다. 둘이 할매는 우선 찾기 쉬운 쭈부터 뜯었다. 뿌리째 뽑으면 싹이 더 이상 돌아나지 않기 때문에 손칼로 대공을 자르면서 앞허리에 찬 보통이에 주워 담는다. 이래야 다음에 와도 새순이 또 돌아나오는 것이다. 한두 해 뜯은 쭈씨가 아니니 나이는 많아도 손놀림은 재빠르다.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뜯은 것 같지 않았으나 다가앉아 뜯어보니 무척 많이 뜯았다. 순이 할매는 달래밭을 맡았나보다. 얼마나 많은지 금새 나물 보통이가 가득 찬다. 가느스름한 것은 캐지 않고 대공이 굵은 것만 캔다. 대공 굵은 쭈이 마늘처럼 생긴 알뿌리도 굵다. 매운 내도 확 끼친다.

다리 튼튼한 젊은이들은 낮은 언덕을 지나 산자락으로 올라가고 있다. 양지녘이어서 벌써 취나물도 제법 뜯은 모양이다. 미역취야 이고장에 나지 않지만 참취나 곰취나 수리취나 말취는 골짜기마다 넘친다. 비가 온지 사나흘 지났으니 다래쭈도 한 뼘 썩 벌었을 것이다. 통통하게 손가락만큼이나 살이 오른 새순에 죽제비 귀만한 잎도 돌아 있다. 큰 덩굴을 만나면 잠시 한 보통이가 찬다. 줄기를 잡고 스르륵 잡아다니다가 툭 꺾어지는 곳까지 따서 담는다. 통통하고 말랑말랑한 것이 보드랍고도 귀엽다.

어느새 보통이도 모두들 차고 점심 녀이 되었다. 냇가 물가로 슬금슬금 모여든다. 모두들 나무 보통이를 풀어놓고 나물을 고른다. 이 나물 저 나물을 골고루 가른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다. 동작이 굼뜬 아줌마는 전체적인 양이 적지만 그래도 모두들 개의치 않고 똑같이 가른다. 그래서 농담이 오갈 수 있고, 통을 줄 수 있고, 통을 먹고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다. 한 달 뒤 딸 치우는 날 모두들 불려다 한 잔 썩 나누어 먹이면 되기 때문이다. 허허.

수박 참외 서리

동수의 지시대로 오후에 풀을 잔뜩 베서 집애다 갖다 놓고 엄마 아버지 들어오시기를 기다린다. 저녁을 빨리 먹고 자기 집에 모이라 했는데, 오늘 따라 부모님은 영 들어오시지를 않는다. 아버지의 꾸중이 두려워 풀을 두 망태나 베다 놓았다. 외양간을 다시 가서 보니 오후 녀 내내 풀을 뜯어 먹은 누렁이가 큰 눈을 끔벅끔벅하며 되새김질을 하고 있다. 비스듬히 앉아 있는데 옆으로 불거져 나온 배가 남산만하다. 아버지한테 꾸중들을 일은 이제 없다.

서산으로 닥뽕뽕 넘어가는 해가 꼴딱 빠지고 나서 어둑살이 제법 끼고 나서야 아버지가 들일을 마치고 돌아 오셨다. 비가 잦지 않았어도 풀이 많은 콩밭 김매기가 이제야 끝이 났나보다. 엄마는 물론 좀더 일찍 오셔서 저녁 지으시느라 분주하다. 그래도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는 저녁상을 차리는 법이 없다.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지계를 벗어놓고 씻으신다. 엄마는 등불을 키려고 하시는데 석유기름이 없는 모양이다. 노끈으로 묶은 기름병을 내주며 기름집에 다녀 오란다. 그리 멀지야 않지만 가기가 귀찮다. 그렇다고 달빛도 없는 그믐인데 기름을 받아오지 않으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판이니 다녀오지 않을 수도 없다.

아랫마을 방앗간 집으로 쪼르르 달려갔다. 우리 동네 방앗간은 물레방앗간이어서 기름을 취급하지 않는다. 발동기를 돌려 방아를 찧는 아랫마을 방앗간 집엘 가야 석유를 살 수 있었다. 도자기 뒷병에 비료부대를 찢어 돌돌 말아 마개를 막아 가지고는 노끈을 손가락에 낀 채 병을 달랑거리며 아랫마을로 갔다. 10분이면 가는 곳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먼지 모르겠다. 기름 받으러 왔다가 아저씨가 조금 기다리란다. 오늘따라 시간 끄는 일도 되게 많다. 깔때기를 꽃아서 기름을 퍼주신다. 우리집 기름병은 꼭 한 되가 들어간다. 종이 마개를 몇 번 더 비틀어 꼭꼭 막았다.

집에 오니 아버지는 저녁을 막 잡숫기 시작하셨다. 화다닥 평상으로 뛰어올라 상 앞에 앉으려니 엄마가 기름 냄새 난다며 사분으로 손씻고 오라신다. 하는 수없이 샘물을 길어 세숫대야에 붓고 손을 씻었다. 그 동안 엄마는 호야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돌워 불을 붙여 감나무 가지에 거셨다. 모든 게 환해지며 반찬도 다 잘 보인다. 불이 켜지자 감나무에 자러 올라갔던 장닭이 날개를 푸드득거리기 시작한다. 이 녀석은 밥먹을 때도 눈치 없이 똥을 누곤 해서 닭똥이 반찬에 떨어지는 일도 있다.

저녁을 재빨리 먹고 나서 아버지 엄마 몰래 꼴망태를 움켜 쥐고 집을 나섰다. 꼴망태 메고 나가는 걸 보시면 서리하러 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동수네 집에 가니 다른 애들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눈살을 찌푸린다.

"니는 임마, 맨날 와이리 늦노?"

"니들도 늦은 적 있잖아?"

방어에는 공격이 가장 효과적이다. 녀석들이 다행히 더 이상 따지지 않는다.

요즘에야 사시사철 아무 과일이나 먹을 수 있지만, 40여 년 전만 해도 비닐 하우스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제철이 아니면 과일을 먹을 수 없었다. 김을 두어 차례 맨 뒤 모들이 제법 시커멓게 변해 있을 때쯤이면 방학을 한다. 여름 방학을 하고 집에서 한 달을 머물다 보면 낫은 소 먹이라, 들일 거들라, 꿀 베라 틈이 거의 없지만 이틀날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녁마다 동수네 초당방 앞 평상에 모여 앉아 아이들은 별을 헨다. 우리 동네 머슴마들은 여섯인데 동수만 한 살 더 많아 5학년이다. 2년 후배 동생들이 서너 명 있지만 그 애들이 아무리 졸라도 같이 놀아주지 않았다. 그녀석들은 부모님께 뭐든지 일러 바치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면 큰일이 아는 것이다. 동수는 한 살 더 먹었다고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곤 했다.

야, 니들 수박 안 묵고 싶나? 와 안 묵고 싶어, 어데 있나? 어데 있기는... 수박이사 수박밭에 있지 빙신아! 쳇, 난 또 뭐라고!

동수는 계속한다.

따묵으로 안 갈래? 들키만 우알라고? 밤에 가는데 와들키노? 그라마 오데로 갈라 하는데~?

동수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작전 계획이 다 서있던 터였다. 공부는 잘 못하였지만 과일 서리 작전에는 따라갈 애가 없었다. 월촌 영감네 수박밭을 털기로 하였다. 독길을 따라 오 리나 내려가서 강을 건너면 수박밭이 있다. 늘 참외 농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참외 서리도 겸하게 된다. 이윽고 작전 명령이 하달된다.

"영덕이 철후이는 덩치가 작으니까 참외를 따라. 망태에 세 개만 담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다른 놈들은 큰 수박 한 개씩만 따라. 참외 밭을 기다보면 어슴푸레 참외가 보이는데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면 달콤한 냄새가 나는 놈을 따라. 수박은 두드려서 퍽 퍽 소리가 나면 덜 익은 놈에게 톱톱 소리가 나는 놈을 따라. 강을 건너기 전에 옷을 이쪽에 다 벗어두고 맨몸으로 건너야 한다. 들켜서 달아나다 보면 주인 영감에게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잘 잡히지 않는다. 만 과일들은 강물에다 마구 던져라. 물에 뛰어 들어 헤엄쳐 따라가면 된다. 알았제?"

길고 긴 명령이었다. 들키지 않고 성공하게 되면 돌아와서 배가 터지도록 과일을 먹을 수 있었다. 중간에 들키면 수확은 반 이하로 줄어든다. 그런 날은 조금씩 나누어 먹는 수박에 없었다. 그리고 동수의 말대로 하면 거의 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게 중에는 꼭 욕심스러운 놈이 끼어 있어서 수박을 여러 개 깨뜨려 보고 오는 놈이 있다. 그런 다음날이면 동네 어른들은 월촌 영감의 방문을 받게 되고 농주 여러 사발을 대접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하겠다고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그래도 어른들에게 크게 혼나진 않았다. 어른들도 어릴 때 그런 짓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이리라.

한 여름밤 정경

저녁을 먹은 뒤 마당 한구석에 쭈을 뜯어 매캐하게 피우는 모깃불을 놓고 멍석이나 평상을 펴고 식구들이 돌아앉으면, 사방이 째깍하니까 저절로 환한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 여름 하늘의 현란한 별자리는 우리의 눈을 황홀하게 한다. 여름철 밤에 우리는 은하계 우주 중심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여름철 하늘에 별이 가장 많이 보인다.

머리를 치켜들고 하늘 중앙을 바라보면 은하수가 하늘 가운데를 지나가고, 그 양편에 견우와 직녀가 밝은 빛을 뽐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은하수 한 가운데는 백조자리의 큰 고니 한 마리가 남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백조자리는 정말 멋지게 생겼다. 큰 고니 궁둥이에 해당하는 별이 '데네브'라고 하는데, 여름 하늘 중에서 직녀와 함께 가장 밝은 별이다. 그 별 조금 남쪽으로 몸통별이 있고, 거기서 좌우로 날개가 뻗쳐진다. 날개에 해당하는 별은 좌우 대칭으로 세 개씩이나 늘어서 있다. 머리에 해당하는 별은 한 참 더 남쪽에 있어서 고니가 목을 길게 뽑고 남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이다.

은하수 강변 바로 오른쪽에 아주 밝은 직녀가 반짝인다. 아주 크게 반짝이는 직녀성의 바로 옆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덜 밝은 별 다섯 개가 있다. 그 생긴 모양이 서양거문고 모양이라고 서양에서는 이 별자리를 거문고자리라고도 한다.

이 별자리의 은하수 반대편에 있는 밝은 별이 하나 있는데, 이 별이 바로 견우성이다. 별 세 개가 나란히 있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어서 독수리자리라고도 한다.

데네브와 직녀성과 견우성은 큰 직각삼각형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별이 여름철 별자리를 찾는 기준이 된다.

이때 갑자기 유성이 하나 꼬리를 끌면서 떨어진다. 그러면 할머니는 쫓쫓 혀를 차신다. 또 누가 한 사람 천국으로 들어갔다고 하신다. 어릴 때 이런 할머니의 말씀은 모두 사실처럼 들린다. 어떨 때는 유성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도 하신다.

그 말씀을 믿고 소원을 빌기도 한다. '뒷집에 사는 갑순이와 나중에 결혼하게 해 주소서!'하고 말이다. 어떨 때는 유성이 꼬리를 물고 떨어지기도 한다. 이럴 때면 아이들은 신이 난다. 여러 가지 소원을 다 수 빌 수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술술 시작된다.

"저 뒷동네 칠복이 안 있나? 가가 예릴 때, 산 너머 별뚱 떨어지는 걸 보고는 쫓아 갔단다. 별뚱도 금방 떨어진 건 몰랑몰랑하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주워 와서 상추쌈에 싸서 먹었단다. 그런 다음부터 가가 얼마나 똑똑해졌다고! 공부도 별로 못하던 아~가 공부도 잘 하게 되었제. 쌈도 아주 잘 하게 돼 가지고, 근처 동네에서는 당할 아~가 없었다고 안 하나?"

"할매 그거 참말이제? 나도 인자 떨어지기만 해 보라. 얼른 가서 주워 먹어야지."

"아이고 우리 손자도 공부는 잘 하고 싶은 가베! 그래 내가 주워도 갖다 주께!"

"할매, 다른 이야기는 없나? 다른 이야기도 좀 해봐!"

"저게 건우 직녀 보이제? 저 두 별은 일년에 한 번씩 은하수를 건너가 만난단다. 저 하늘의 은하수는 물이 하도 가벼워 아무거나 다 가라앉기 때문에 어떤 배도 띄울 수가 없단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기러기 털도 가라앉는단다. 그래서 일년에 한 번 만나는 날, 칠월칠석날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까마귀와 까치들이 하늘로 올라가 다리를 놓아주지. 그래서 그 다리를 까마귀 오(烏)자와 까치 작(鵲)자를 따서 '오작교'라 하는기라. 그때 만나게 되는 건우 직녀는 하도 기쁘고 또 금방 헤어져야 하는 슬픔 때문에 우는데, 그 눈물이 비가 되어 땅으로 뿌린단다. 올해도 그 날은 비가 왔데이. 니들도 앞으로 잘 살펴봐라. 칠월칠석만 되면 우짜든동 비가 뿌린단다. 그래서 그 이튿날 까치와 까마귀와 땅으로 내려왔을 때 보면, 건우 직녀가 그 머리를 밝고 지나다녔기 때문에 머리털이 다 벗겨져 있단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지만, 들을 때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신기해하며 고개를 끄덕거리곤 했다. 그리고는 '내년에는 꼭 칠월칠석날 밤에 비가 오는지 봐야지.'하면서, 그 이듬해가 되면 다 잊어버리곤 하였다. 할머니는 또 이어가신다.

"니들은 새벽잠이 많아서 잘 모르지만 새벽녘에 동쪽 하늘을 쳐다보면 셋별이 뜬단다. 이 셋별은 금성이라고도 하고, 계명성이라고도 하는데, 새벽 하늘에는 그거보다 더 밝은 기 없단다. 옛날 유식한 사람들은 '태백성'이라고도 했는데, 이 별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거나, 엉뚱한 자리로 이동하면 큰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 그 별이 군사를 뜻한단다. 내사 잘 모르긴 몰라도 그 별이 제 자리에 있지 않으면 별별 난리가 다 났단다. 그 뿐인 줄 아나? 해가 지기 전에 잠시 나타나는 진성(辰星;수성)도 있데이. 이 별은 물을 다스리는 별인데, 이 별이 이상한 모습을 하거나 하면 물난리가 꼭 났단다."

이때쯤이면 벌써 우리들은 엄마가 부쳐주는 부채 바람에 졸음이 겨워, 엄마의 다리를 베고 잠이 스르르 들고 말았다. 그리고는 꿈에 건우가 되어 강을 건너 직녀로 변한 뒷집 갑순이를 만나곤 했었다.

추석과 대목장날

나락이 익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텃논에 새를 쫓아야 하는 임무가 부여된다. 장대를 들고 나가 새를 쫓아내지만 참새들은 너무 영리해서 이쪽에서 쫓으면 저쪽으로 날아가 아직 여물지도 않은 낱알을 까먹는다. 덜 여문 낱알은 흰 즙을 빠르고 나면 쪽정이가 되어 힘없이 달랑거린다. 요즘이야 공기총이 있어서 뽕뽕 소리를 크게 낼 수 있지만, 삼사십 년 전에는 그런 총이 있을 리 없다. 그래서 만들어 낸 것이 새 쫓는 채찍이다.

이 채찍은 가을 내 흔들고 땅을 때려도 헤어지지 않아야 하므로 새끼로 꼬기야 하지만, 끝은 삼을 엮어 꼬아야 한다. 가운데 부분은 왕골도 섞는다. 이렇게 두어 발 넘게 만든 채찍을 들고 나가 허공에다 대고 세게 후리면 '뽕!'하는 소리가 나는데, 요즘의 총 쏘는 것 만큼이나 소리가 크다. 참새들은 그제 총 소리인 줄 알고 후루룩 달아난다.

이러구러 날들이 지나고 추석이 사나흘 남은 대목 장날이 되면, 아이들은 으레 부모님 눈치를 살핀다. 시키는 심부름을 열심히 해야 하고, 들일도 열심히 거들어야 한다. 그래야 대목 장날 장에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여름 내내 신고 다니던 검정고무신은 뒤꿈치가 닳아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자꾸 벗겨지고 덜렁거리며 흙과 모래가 자꾸 신발 안으로 들어온다. 일부터 부모님 눈에 잘 띄도록 철퍼덕 철퍼덕 소리를 내면서 걸어다닌다. 추석 대목에 운동화 한 켤레를 사 달라는 말없는 시위였다. 잘 하면 옥양목에 검정물을 들인 학생복도 한 벌 얻어 입을 수 있다.

이 학생복에는 금빛 양철 단추가 달려 있다. 중학생이 되어야 입을 수 있는 학생복이지만 오륙 학년 때 이 옷을 한 벌 입게 되면 추석 전날도 학교에 입고 간다. 어쩌다가 하교 길에 무덤 앞 잔디밭에서 씨름이라도 벌어지면 안절부절못한다. 혹시 실밥이 타지기라도 하면 집에 가서 혼이 나고, 바쁜 어머니께서 꿰매주실 여가가 없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옷이 타지기라도 씨름에서 질 수야 없는 일이다. 끝까지 잡고 버티다 보면 실밥이 타지는 게 아니라 생으로 쪽 찢어지는 수도 있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보여드리면 빗자루로 얻어맞기 십상이다. 어머니 안 계시는 틈을 타 누나에게 좀 꿰매 달라 하면 꿰매 주기가 하지만, 어머니께 꼭 일러 바쳐서 추석날부터 혼나기 마련이다. 그래도 차례 모시러 큰집에 갈 때는 꼭 데려 가신다.

차례를 지내고 큰어머니께서 그릇그릇 담아 차려 내오시는 음식이 꿀맛이다. 동그랑땡도 있고, 고기와 파와 당근과 무를 가늘고 긴 꼬챙이에 끼워 구워놓은 산적도 있다. 술빔을 깔고 찐 송편이야 집에 가도 있으니까 다른 구이들을 잔뜩 먹는다. 배추 전, 부추 전, 호박 전, 두부 전 등 전도 많다. 고구마나 감자에 밀가루 반죽을 묻혀 프라이 팬에 구운 전들도 참 맛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햅쌀밥만 해도 여름 내내 먹지 못했던 터라, 사실 간장만 한 종지 있어도 충분할 판이다.

가을걷이

음력으로 구월은 양력으로 대강 시월이다. 들판마다 곡식이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불면 황금색 파도가 일렁인다. 벼베기가 시작되면 학교에서도 으레 농번기 가정실습을 한다. 아주 바쁜 기간을 잡아 한 3일 동안 학교를 쉬게 되면, 부모님들은 좀 숨통이 터진다. 벼베기는 요즘처럼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손 가는 일이 많은데, 아일리이 학교를 쉬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된다. 주전자에 막걸리 받아오기, 마실 물 떠오기, 지푸라기 추스리기, 짚단 나르기, 소달구지에 벋단 던져 올리기, 쇠죽 끓이기 등 잔심부름 외에도 할 일이 산더미 같다. 그래도 벼를 베서 두어뿔박 디딜방아를 찧어 햅쌀밥을 먹어보면 간장만 찍어 먹어도 맛이 아주 좋다.

콩도 거두어 들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들일을 끝내고 오실적 마다 콩묵음을 한 지게 지고 오신다. 콩묵음이 한 마당 가득 말려지면 도리깨로 콩타작을 한다. 다정하신 아버지는 작은 도리깨를 만들어 아이들도 타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종일토록 콩을 두들기면 콩알이 떨어지고, 콩깍지는 풍구에 날려 남아있는 콩알을 추스린다. 풍구가 없는 집에서는 바람이 잘 부는 집 뒤 언덕에서 날리기도 했다.

고추도 모두 따서 지붕에 널어 말려야 한다. 요즘이야 기름 건조실이 흔해 태양초가 드물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태양초였다. 초가집 지붕 마다 바알간 고추가 널려 있어서 가을 지붕빛이 곱기도 고웠다. 게다가 박도 함께 여물어 가며 하얀 박꽃이 밤중에도 빛을 발하곤 하였다. 박은 지붕에 올라가 바늘로 찔러봐야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를 안다. 바늘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익은 것이다. 톱으로 타서 씨를 들어내고 박 속을 긁어 박나물을 모쳐 먹는다. 별 맛이 없지만 그 담백한 맛이 박나물의 맛이다.

지금이야 미국의 면화를 수입하다 보니 다래밭이 없지만, 집집마다 산비탈을 이용해 다래를 가꾸었다. 발채와 망구에 다래를 수북히 따서 담아오면 아낙네들은 또 바빠진다. 명을 말리고 방앗간에 가서 씨를 타 오면 하얀 솜만 소복하다. 겨울에 아들딸 장가 시집 보내려면 새 이불 지을 솜도 마련해야만 한다. 알밤도 주워야 한다. 다 익으면 저절로 밤송이가 벌어져 떨어지지만, 떨어지는 밤을 주우려면 시간이 너무 먹힌다. 나무를 흔들고 장대로 두들겨 밤을 따다 보면 머리에 밤송이가 떨어져 머릴 찢리는 일도 많았다. 그래서 반드시 밤을 따러 갈 때는 모자를 꼭 써야 한다.

가을누에도 처서 명주를 장만해야 한다. 혼사나 상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나무 싸리나무를 베어 비도 매야 한다. 수숫대 빗자루도 따로 쓸데가 있으니 수수를 떨고 난 해기는 잘 말려 놓아야 한다. 낮엔 추수요, 밤엔 명주 묵화 짓기가 계속되니 아낙네들의 일은 해도해도 끝이 없었다.

하늘을 보면 잠자리가 새까맣도록 날고 이윽고 제비들도 돌아갈 채비를 한다. 늦은 가을비라도 한두 차례 내리면 기온이 쑥 내려가고, 노인들 방에는 군불도 더러 지펴야 한다. 군불 재료는 콩깍지가 제격이다. 딱딱딱딱 하면서 타는 콩깍지 속에는 더러 콩알이 남아있어 그 콩알이 불에 그을리면서 튕겨 나와 이마를 때리는 수도 있었다.

이러구러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함께 가을은 깊어가는 것이다.

시사 떡

세일제(歲一祭)라고도 하는데 대조 이상인 조상의 산소에 가서 해마다 한번 드리는 제사이다. 원래는 3월 상순의 어느 날을 택하여

지내던 것이 차츰 3월에서 10월 중의 날짜를 잡아 지내는 것으로 이를 흔히 시사(時祀)라고도 한다. 대체로 추석을 지낸 뒤에 지내 왔으나, 동지를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추수가 끝나고 타작을 해서 곡식을 갈무리한 다음 음력 구월이나 시월에 지내 왔으니, 상당히 추울 때까지 지내는 수도 많았다.

이 시사를 제일 애타게 기다리는 층은 물론 아이들이다. 어른들은 조상에 대한 의례로 제수를 장만해 산소를 찾아가지만, 아이들은 시사 떡을 얻어먹게 되는 것이 좋아서 이 날을 기다리게 된다. 종가가 아닌 집 아이들은 종가댁의 시사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시사 지내는 날에는 그 집 자손만 떡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서 나무하던 아이들도 다 얻어먹게 되니, 꾸역꾸역 아이들이 모여 들게 마련이다. 시사는 휴일을 맞아 지내지 않고, 학교도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네 시사를 지내는지 알기만 하면 아이들은 학교를 파하고 나서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넘어서 시사 장소를 찾아가게 마련이었다.

우리 동네 제일 부잣집 시사 지내는 날이 왔다. 한식골이라는 골짜기 가장 안쪽 산 중턱이 시사 지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갔다가 다시 골짜기를 거슬러 올라오기는 너무 멀고, 학교에서 아예 산을 넘어 찾아가기로 하였다. 산이 상당히 높아 힘이 들지만, 떡을 많이 하였다는 친구의 말에 혹하여 여럿이 산을 넘어갔다. 나물 뜯고 땀나무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느 산이나 산길은 잘 나 있었다. 산 중턱은 너덜(크고 작은 돌멩이가 즐비하게 흩어져 있는 비탈길)이라 발목을 빼어 가며 산을 넘었다. 넘는 도중 큰 바위 끝에 겨우 얹혀져 있는 사람 크기의 바위를 굴리기로 하였다.

여러 명이 힘을 합쳐 큰돌을 굴렸다. 쿵! 쿵! 하며 산비탈을 구르는 바위는 한참 굴러 가다가 깨어지면서 조각이 수십 미터 상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순간 아이들은 환호를 올렸다. 팽그르르 돌며 깨진 조각은 허공을 가로지르다가 소나무 가지에 부딪히는 순간 소나무 가지가 싹둑 잘리면서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 아이들의 환호성은 절정에 달았다.

이러구러 별별 장난을 치면서 십여 리를 걸어 시사 지내는 데를 찾아갔다. 해가 벌써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었다. 어른들이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하는 것을 지켜보며 아이들은 묘 따락 아래 모여 앉아 기다렸다. 역시 기다린 보람은 있었다. 팔고물 콩고물 놓은 손바닥보다 더 큰 시루떡을 하나씩 얻었다. 그리고 오징어도 세 명 앞에 한 마리씩 얻었다. 그 떡과 오징어를 뜯어먹으면서 산길을 내려오는 아이들의 표정은 완전히 '행복' 그 자체였다. 가을 해는 짧아 어둑어둑해서야 집에 도착했지만 어머니께 혼이 나도 떡과 오징어를 얻어먹은 기쁨에 비하면 그건 아무 것도 아니었다.

겨울 밤

요즘 들어 지구 온난화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옛날에는 지금보다 추위가 더 심했다. 할아버지 머리맡에 떠놓은 자리끼가 아침에 보면 공공 얼어있는 일이 많았다. 냇가에는 12월초면 벌써 얼음이 언다. 첫눈이 두어 차례 뿌리고 나면 강에도 슬슬 얼음이 끼기 시작한다.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방학을 하고, 아이들은 열심히 앓을뱅이 썰매를 만든다.

두께 두 치쯤 되는 판자를 구해서는 높이 반 뼘쯤 되게 켜고, 썰매날 앞부분이 될 부분을 비스듬하게 자른다. 그래야, 턱이 진 얼음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공사판을 돌아다니며 철사를 구해서 날 밑 부분에 돌린다. 뒷부분은 철사를 고리 모양으로 구부려 나무에 박고 날이 되는 판자 밑을 돌려서 비스듬한 앞부분으로 구부려 올려서는 날 위 부분까지 말아 올려 못을 쳐서 고정하면 된다. 그 다음 두 날을 평행하게 놓고 얇은 판자를 그 위에다 대고 못질을 해서 앓을 판을 마무리한다. 썰매를 뒤집어놓고 쇠 토막으로 철사를 좀 갈아야 한다. 철사가 윤이 나고 반질반질해야 썰매가 잘 나가는 것이다.

시골 냇가는 바위도 많고 갯버들도 많아 얼음이 평평하게 고루 잘 얼지 않는다. 물 흐르는 모양대로 얼어서 울퉁불퉁한 곳이 많다. 고인 물이 먼저 얼고 그 위에 흘러내린 물이 또 덧붙어 얼면 얼음은 더욱 층이 지어져 울퉁불퉁한 표면이 된다. 그러면 그런 곳이 더욱 재미있다. 이런 곳에서 얼음지치기를 하려면 송곳이 좋아야 한다. 보통은 나무 막대기 끝에 철사를 뾰족하게 만들어 꽃고 손잡이를 붙이지만, 그래서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좀 굵은 철사를 구해야 한다. 아예 가는 철근을 구해도 좋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썰매 위에 꿰어앉아 얼음을 지치지만,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썰매 위에 두 발을 딛고 서서 썰매를 탄다. 그러려면 송곳이 길고 힘이 있어야 한다.

물 고인 논에서 썰매를 타면 그냥 빙빙 돌거나 길게 달리기만 하게 되는데, 울퉁불퉁한 냇가에서 얼음을 타면서는 별별 묘기를 다 보인다. 얼음이 갈라진 틈을 달강 건너기도 하고, 심하게 턱이진 곳을 오르기도 한다. 과감한 아이들은 썰매 길이보다 더 넓은 틈을 건너기도 하고 무릎 높이의 턱을 오르기도 한다.

어차피 점심을 먹지 않는 가난한 농촌의 아이들은 한낮이 되어도 집으로 갈 필요가 없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얼음을 지치다 보면 햇살이 뜨거워져 얼음이 슬그머니 녹게 마련이고, 아직 설 얼은 얼음은 군데군데 깨져 버린다. 시원찮은 신발은 찬물이 새 들고 양말은 젖는다. 냇가에는 여름 홍수 때 떠내려온 나뭇가지들이 물풀에 걸려 있다. 집에서 쇠똥에 불을 붙여온 아이들은 양말을 말리느라 불에 가까이 갖다 댈다. 그러면 주로 나일론으로 짠 양말은 금새 불에 타 구멍이 난다. 양말 바닥을 태워먹지 않은 아이가 없

고, 아이들마다 다른 천을 대고 기운 양말을 신고 다녔다. 그걸 또 태워먹어 집에 가서 어머니께 혼이 나고 매일 같이 다시 구워먹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전 오후를 신나게 놀다가 해가 기울면 집으로 간다. 점심을 먹지 않으므로 저녁은 일찍 먹기 마련인데, 쇠죽 끓인 것을 퍼 주고 이 방 저 방 군불을 넣고 나면 캄캄하게 된다. 라디오도 없던 시절이라 뜨끈뜨끈한 방에 형제자매들이 앉았어도 '이거러저거러 각거러'나 '씨씨씨'밖에 할 놀이가 없다. 부모님들이야 일찍 자라고 성화를 하시지만 아이들이야 말을 들을 리가 없다. 밤은 이속하게 젖어들고 아이들은 배가 고프니 군것질할 궁리를 내게 된다. 집 뒷마당에 묻어둔 무 구덩이를 다녀온다. 짚으로 막은 무 구덩이를 머리 채 들이밀고 붉은 놋을 골라 오면 손톱으로 껍질을 한 바퀴 돌려 벗기고 버섯 깨물어 먹는다. 좀 맵기야 하지만 겨울밤에 먹는 달콤한 무 맛이야 어느 과자가 대신할 수 있으랴!

겨울 연날리기

겨울은 눈이 내리고 북풍이 몰아쳐야 제 맛이 난다. 땅이 얼어붙고, 한밤중엔 저 멀리 냇가에서 얼음에 금가는 소리가 '썩!'하고 들려야 겨울 맛이 난다. 겨울이 춥지 않고 따뜻하면 그 이듬해 봄엔 꽃이 적다고 한다. 병충해도 심하다고 한다. 병균과 벌레들이 얼어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겨울은 추워야 한다고 옛 어른들은 말해 왔다.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무리로다."란 법어의 내용이 이것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북풍한설이 몰아치고 설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창호지를 오리고 비닐 우산 살을 쪼개어 연을 만든다. 연은 일단 가벼워야 하므로 우산살을 쪼개긴 쪼개되 껍질이 붙은 살을 쪼개 내야 가벼우면서도 잘 부러지지 않는다. 창호지를 세로 두 뼘, 가로 한 뼘 반되도록 오려 두 번 접은 뒤 안쪽 모서리 부분을 부채꼴로 잘라내고 펴면 창호지 가운데가 동그랗게 구멍이 난다. 베어 낸 종이는 물감을 칠하여 구멍 위쪽에다 바른다. 알록달록한 색깔이 잘 나타나면 공중에 떠올랐을 때, 멋진 연으로 보이는 것이다.

창호지에는 대나무 살을 붙인다. 창호지 따지를 조그맣게 잘라 대나무를 연 종이 위에 놓고 발라 고정시킨다. 그러면 말랑말랑하고 팽팽한 방패연이 만들어진다. 균형이 잘 잡힌 연은 꼬리를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양쪽 끝에 꼬리를 붙이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야 균형이 완벽하지 않아도 뱅글뱅글 맴을 돌거나 땅으로 처박히는 일이 적다.

방패연이 좀 점잖은 어른들의 연이라면 가오리연은 당연히 아이들의 연이다. 가오리연은 정말 가오리처럼 만든다. 어떤 애들은 꼬리를 너무 길게 달아 그 무게 때문에 잘 떠오르지 않기도 했다. 그러면 동네 형아들이 꼬리를 적당히 잘라 주기도 했다. 공중에 띄웠을 때 방패연이 좌우로 기우뚱기우뚱 움직인다면, 가오리연은 꼬리의 힘을 받아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며 꼬리를 바람속에 나부끼며 요리조리 잘도 헤매 다닌다. 끊임없이 좀 더 높은 하늘로 솟아오르려는 듯이 바람의 틈을 헤집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연이 완성되면 연실을 마련해야 한다. 목화실은 유리가루를 쥘어 풀칠해서 바르면 남의 연실을 끊어먹기야 좋지만 집에 있는 실꾸리를 다 풀어 감아도 백발이나 이백발은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이 무거워서 그 무게를 이기려면 연도 상당히 커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연구해낸 것이 나일론 양말이다. 다 떨어진 나일론 양말이라도 목부분은 늘 생생하다. 게다가 질기고 가벼워서 연실로는 여간 안성맞춤이 아니다. 산꼭대기 높이로 연을 올려도 잘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양말을 풀어 연실을 만들고 목없는 양말을 만들어 놓는다고 등짝을 두들겨 패기 일수였다.

마을마다 전깃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던 때이라, 전깃줄을 피해 연을 날리려면 들판 끝으로 나가는 게 좋다. 들판 끝 강둑에 주욱 늘어 서서 연을 올린다. 동생들은 형들이 열레를 돌리며 실을 풀면 연의 몸뚱이를 잡고 달리다가 공중으로 던져야 한다. 조금이라도 떠서 바람을 받기 시작하면 연은 곧 높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연줄이 서로 감겨 끊어지거나 하면 공든 탑이 무너지므로 서로 꼬이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간혹 더 큰 형뻘의 연실을 끊어놓게 되면 얻어맞기 십상이다. 연실이 끊어져 산 넘어 날아가 버린 연을 찾으려 하루 종일 산너머 마을을 찾아가 돌아다니는 형편이었으니, 연실에 뽕은 유리가루를 발라 연줄 끊기 시합을 하는 것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하는 행사였다. 연이 상할까봐 밤에 잘 때도 장롱 위에 잘 얹어 놓곤 하던 것이 옛날 아이들의 버릇이었다.

실컷 연을 날리다가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연실도 닳아 끊지 않아도 곧 끊어지게 마련이다. 늦겨울 바람에 연실이 끊어져 연이 하늘 높이 날아가 멀리멀리 사라지면 그해 소원도 성취되는 것이라 하여 모두들 좋아하곤 했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었다.

양력으로 2월은 음력으로 선달과 정월이 교차하는 수가 많고,正月 대보름도 양력 2월의 끝자락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양력 2월 초에 설이 오면, 2월 말에 대보름날이 있다. 아직 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냇가 버들개지는 통통하게 부풀어오르고 있는 중이다. 논두렁의 풀은 아주 바싹 말라 있어 불을 당기면 솔솔 잘도 타며 번져 나간다. 냇가에서 겨울 내내 스케이트를 타다가 지친 아이들은 뭔가 새로운 놀이감이 필요하다. 설을 지난 지 며칠 안되어서 떡국은 동이 났고, 강정도 다 먹어버렸다. 공부도 잘 되지 않는 2월에 학교를 다녀오면 아이들은 심심해 미칠 지경이다.

이런 때 아이들은 대보름날을 기다린다. 학교를 파하고 일찍 집에 돌아온 아이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손에손에 낫을 들고 동네 앞 큰산으로 올라간다. 동네 가까운 낮은 산에는 땀감으로 마른 풀과 갈비, 고자배기 등을 다 해 가서 달불을 놓을 건덕지가 없는 까닭이다. 모두들 열심히 풀을 베어 한 아름씩 안아다 산꼭대기에 쌓고, 청솔가지도 제법 많이 쳐서 마른 풀 위에 쌓는다. 이렇게 달불 준비를 끝낸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는 동네 어귀로 다시 모인다. 보름달은 저녁 여덟 시나 되어야 뜨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올라갈 필요는 없다.

달 뜨기 한 시간여 전에 아이들은 산으로 올라간다. 몇몇 아이들은 호주머니에 성냥이 들어 있다. 달불 준비를 해놓은 산꼭대기에 이르면 동녘이 흰해오기 시작한다. 마른 풀을 한 줍씩 말아 쥐고 성냥을 굿는 아이에게로 모여든다. 마른 풀에 불을 붙인 아이들은 난가리 만큼이나 쌓아놓은 불지를 더미 주위로 돌아서서 불을 당긴다. 동산에 달이 막 얼굴을 내밀 때쯤, 불꽃은 타올라 산꼭대기를 연기와 화염으로 장식한다.

너무 어려 산꼭대기 행사에 따라가지 못한 꼬마들은 어른들을 따라 동네 어귀에 나와 불꽃이 높이 솟아오르면 와! 하고 소리를 지른다. 불을 지른 산꼭대기 아이들도 마구 괴성을 질러댄다. 산과 동네에서 지르는 아이들의 고향소리에 놀라 개들도 마구 짖어대기 시작하고 산꼭대기의 달불은 절정에 이른다. 그 함성과 불꽃에 달이 그을려지는 것이다.

일 년 중에도 가장 달이 크게 떠오르는正月 대보름날 밤은 이렇게 익어간다. 설은 질어야 좋고 보름은 맑아야 좋다는 말이 예로부터 전해 온다. 설이 질자면 한창 추울 때니까 눈이 내려야 할 것이고, 대보름달이 뚜렷하자면 눈비가 와서는 안 된다. 설에 오는 눈은 묵은 해를 망각 속에 파묻고 새해를 순결하게 시작하는 서설(瑞雪)이 되고, 대보름의 밝은 달은 일년 동안의 우순풍조(雨順風調)를 가져오는 점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라 온 동네를 다 비추면 아이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깡통에 구멍을 뚫고 끈을 매달아 솥에 불을 당겨 집어넣고는 빙빙 돌리며 아우성을 치며 마을 앞을 뛰어다닌다. 이런 쥐불놀이만 해도 아이들은 신이 나는 것이다. 아마 동네에 깃들기 쉬운 악귀들이 이런 아이들의 악다구니를 못 견뎌 다 달아나고 말 것이다. 밝은 달빛과 산꼭대기의 달불과 동네 앞 들판의 쥐불의 환함에 놀라 악귀들이 일년 동안 동네 근처를 얼씬도 못하게 하려는 조상들의 순박한 마음이 어려서 만들어진 놀이이리라.

귀신은 어둠을 좋아한다고 믿었기에 새봄을 맞이하기 직전, 동네를 이리 크게 밝혀 악귀들을 내쫓고 일년 동안 동네 사람들의 무병무탈과 행운을 기원하는 행사로 굳어졌으리라. 바람이 제법 심하게 부는 날에도 이 행사는 거르지 않았고, 이 또한 땀나무 때문에 민둥산이 되어버린 덕분이었으니 참 아이러니컬하기도 하다. 산림녹화의 가장 확실한 기초가 되는 연탄이 개발되어 산에서 땀나무를 구하지 않게 되자, 우리나라 산은 곧바로 우거져 산불이 날 위험 때문에 이 대보름날의 달불놀이는 저절로 없어지고 말았다. 환경보존 관점으로 보면 참 다행한 일이지만, 대보름 달불놀이의 낭만이 사라져 버려 한견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노래방 우스개가 있다. 노래는 하기 싫은데, 자꾸 시키면 그걸 피하는 방법이 있다고... '날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라는 '어머니 은혜'를 부르면, 아무리 흥겹게 달아오른 분위기이더라도 금방 숙연하게 식어 버린다. 화가 나거나 좋은 일이 생겨 날뛰다가도 이 노래만 들으면 누구나 웃기가 여머지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법이다.

아버지께서는 늘 밖으로 일을 나가신다. 농촌 마을에서 살더라도 아버지와 마주 대하고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는 일은 아주 드물었다. 어릴 때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마련이다. 이웃집 잔치집에 갈 때도 어머니 치마고리를 붙잡고 간다. 혼인잔치 중 대례상 위에 올라앉아 있던 장딸 암탉이 쪼아먹던 쌀도 한 움큼 집어 주신다. 전 부치는 데를 따라가면 넓적한 호박전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다.

길을 가다 넘어져도 '엄마야!'라고 소리 지른다. 놀랐을 때, 당황했을 때, 너무 좋을 때, 너무 슬플 때, 이 모두 어머니와 함께 그 감정을 나누면 편안해지는 게 사람인 모양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군인들도 의외의 일을 당했을 때 '엄마야!'라고 소리 지른

다. 엄마는 감탄사요 발어사(發語詞)요 구원의 손길이다.

우리들의 어머니는 항상 가정에서 뒷바라지만 하는 분이셨다. 모든 것이 아버지들 뜻대로 결정되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는 어머니이시다. 자식들도 집안에 생긴 큰일은 아버지와 의논한다. 어머니는 뒷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의식의 밑바닥엔 언제나 어머니의 온기와 입김과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 주연(主演)이 아니고 조연(助演)이심을 만족하시며 조금도 언짢게 여기거나 마음 두시지 않는다. 오로지 희생만 하고 사시면서도 자식들에게 뭔가를 더 해 주지 못해 노심초사하신다.

비 올 기운이 있어도 아이들은 그냥 학교를 간다. 학교 공부가 마칠 때 좀 소나기가 퍼부으면, 어느 집 어머니도 그냥 기다리시지 않는다. 아이가 비를 맞고 올까봐 안달을 하는 분은 어머니다. 우비를 가지고 마중을 나가실 때에도 아버지 몰래 나가신다. 아버지께서 아시면 '애 버릇 나빠진다.'며 못 가게 하실까봐 우비를 슬쩍 감추고선 아이를 마중 나가신다. 십여 리나 되는 길을 마중 오시다가 중간에서 아이를 만나게 되면, '그냥 학교에서 기다리지 왜 비를 맞고 오느냐.'며 아이를 오히려 나무라신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인 줄 아이들도 너무나 잘 안다.

아들이 군대 간지 서너 달이 지나면 다음 달에 휴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계시면서도 달포 전부터 저녁밥을 한 그릇 더 떠서 이불 밑에 넣어 놓으신다. 아들이 갑자기 휴가를 얻어 나올지도 모른다는 안쓰러움 때문이다. 군에 간 아들이 꿈에 보이면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났다고 느끼고, 서둘러 면회를 가시는 분이 또한 어머니다. 떡과 닭찜을 해 면회를 가서 아들이 무고하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 하고서야 안심하는 분이 어머니다.

옛날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는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로 시작된다. 참말 구수하고 인정스러운 서두였다. 입에 익숙한 낱말을 글자로 처음 배우면서 발음도 분명하게 선생님을 따라 읽을 수 있었다. 그게 언제부터인가 국가관을 강조하면서 '나라 우리나라 태극기 우리 국기'식으로 바뀌었다. 옛날 교과서가 감성 중심이었다면, 그 이후의 교과서는 이성 중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성 중심으로 교과서를 개편하고 나서, 과연 얼마나 우리 국민이 과거보다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버린 이면에 우리들의 따뜻한 '정감(情感)'이 상당히 상해버린 것 같아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엄마에게 포근히 안겨 우유 대신에 엄마젖을 먹었고,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따라 읽었으며, 다 찢어진 비닐 우산이지만 비오는 날마다 마중을 나오셨고, 군에 간 아들이 언제 휴가나올 지 몰라 늘 아랫목에 밥 한 그릇 더 떠 놓으시던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삿상을 차릴 일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고등어 자반이라도 한 점 더 잡수시는 밥술갈 위에 얹어 드릴 일이다.

공보리밥

어머니께서는 오늘도 보리쌀을 일어 가마솥으로 한술 찜다. 더운 여름날 마당귀에 돌에 흙을 섞어 대강 만들어 올린 아궁이에는 큰 가마솥이 걸려 있다. 식구가 많다보니 보리쌀을 한술 삶아도 이틀밖에 먹지 못한다. 다 삶긴 보리쌀은 대광주리에 퍼서 식힌다. 보리쌀은 밥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삶아 놓아야 한다. 곧바로 쌀과 함께 밥을 지으면 보리쌀은 퍼지지 않기 때문이다.

농사철에 들에 나가 일하는 남정네들을 생각하면 완전 공보리밥을 새참으로 이고 나갈 수가 없다. 밥솥에 삶은 보리쌀을 펴고 그 위에 쌀을 한줌 얹어 밥을 한다. 김이 폭폭 솟아 오르면 텃밭에서 상추를 대공까지 뜯어다가 물에 담궈 행군다. 큰 양푼에다 밥을 푸고 상추를 잔뜩 얹고 날된장을 사발에 가득 뜬 뒤에 찢고추를 몇 움큼 따서 들로 밥고리를 이고 나간다. 깍지를 끼고 두벌논을 매던 남정네들은 꾸정물이 되어버린 논물에서 쓱쓱 손을 씻고는 논두렁으로 나온다.

상추 큰 이파리를 두 장씩 겹쳐 보리밥을 큰 술로 떠서 얹고 숟갈 뒤편으로 날된장을 쿡 찍어 밥 위에 바른 다음, 대강 상추 잎을 오무려 입으로 마구 밀어 넣는다. 상추쌈이 하도 커서 처음 넣었을 때는 말도 못하고 눈물이 찔끔 나올 지경이다. 반쯤 씹고 나면 찢고추를 집어들고 깍지를 툇 따낸 다음 고추 끝을 잡고 뭉툭한 부분으로 된장을 쿡 찍어 먹는다. 매우하고 알싸한 기운이 이마에 땀을 솟게 하지만, 얼큰하지 않은 고추는 풋내가 나서 맛이 없는 법이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어머니는 따로 뚜껑을 덮어 보이지 않게 가져온 보리개떡을 내어놓는다. 보리를 새파랗게 타서 방아에 찧어 볶아 가루로 낸 다음, 참기름, 파, 간장을 넣고 반죽하여 다시 한 번 절구에 찧고 반대기를 지어 찌낸 떡이다. 등겨도 들어간다. 등겨가 많이 들어갈수록 그것도 곡기(穀氣)라고 떡 맛은 더 구수하다. 색깔이야 시커먼 것이 보기에 맛도 없을 것 같지만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감도는 여름철 별미다.

새참을 먹고 난 어른들은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한숨씩 꼬부린다. 그 틈을 타 아이들은 냇가로 먹을 감으러 간다. 고무신으로 피리 새끼나 송사릴 아무리 떠봤자 그렇게 빠른 놈들을 잡을 수는 없다. 아예 포기하고 물장구나 치며 풍덩거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직 한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술은 이내 새파래지고 아래턱을 덜덜 떨면서 양지바른 개울 언덕으로 나온다. 빠진 감을 줌기 위해서다.

해마다 이맘때면 여기 개울가에 서있는 감나무 밑에는 땡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제법 돌 지낸 애 주먹만큼 자라다 빠진 감은 모두

주워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조그만 항아리에 물을 담아 담근다. 사나흘 지나면 감이 삭아서 뽕은맛이 사라지고 물랑하고 달콤한 감으로 변하는 것이다. 때를 잘못 맞춰 건져내면 감이 초가 되어 너무 시금털털해지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옛날 아이들은 때를 놓쳐 초를 만들 일이 없다. 매일 항아리 뚜껑을 열고는 흥시가 되었는지 점검을 하는데 초가 될 여유가 있을 턱이 없는 것이다. 저녁이 되면 어른들은 솟아오르는 달빛을 기대어 모깃불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운다. 집안 식구끼리 모이기도 하지만, 남자 어른들은 동네 어귀 큰 마당에 모이고, 아낙네들은 과부택 마당으로 모인다. 온갖 소식들이 여기서 오고가며,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웃집 손가락 숫자까지도 서로 환하게 알게 된다. 대처로 나간 이 집 저 집 아들들의 근황이며 달포 전에 산너머 마을로 시집간 개똥이네 맏딸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식도 듣게 된다. 초여름 장마가 지나간 뒤라 하늘은 언제나 맑고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산꼭대기 언저리를 수놓는다. 좀 늦은 시각까지 두런거리다 보면 견우 직녀도 아름다운 모습을 반짝인다. 올해도 어김없이 칠석날에는 흐리고 비가 뿌릴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이들은 슬금슬금 모여들어 수박이나 참외 서리를 간다. 작년에 대처로 이사가고 남은 동구 밖 빈집을 둘러싸고 숭바꼭질을 하다가 어둠이 짙게 깔리면 등 너머 참외밭으로 다간다. 아직 때가 일러 익은 참외가 드물지만 낮에 봐두었던 터이기에, 원두막에 있기가 지루하여 잠시 주막에 들린 주인이 오기 전이라면 어렵지 않게 달콤한 참외를 잘도 따다. 밭을 기다가 참외를 만져보고 크기가 제법이면 들어올려 냄새를 맡아본다. 꽃떨어진 자리에서 달콤한 냄새가 풍기면 거의 익은 놈이다. 서리에 닳아먹은 아이들은 런닝 속에 너무 많이 따 넣어 발뚱을 제 힘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녀석도 있었다.

감나무 가지에 올라가 자던 닭이 꿈결에 날개를 퍼덕이다가 달구똥을 떨어구어 얼굴에 떨어지기도 하는 시각이 되면 모두들 슬슬 자리를 일어나 자기네들 집으로 향했다. 마을 안길도 돌멩이가 빠죽이 튀어나온 곳이 많았지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평생을 다니던 익숙한 길이라, 돌부리를 차서 얹어지는 사람이라곤 주정뱅이 쇠돌이 아버지 말고는 없었다. 등불을 켜나 마나 마을길이야 어차피 환한 길이었다.

소풍 준비 장날

새벽 같이 우리를 깨워 아침밥을 먹게 하신 어머니께서는, 아끼고 아끼던 참깨를 두 되 퍼담아, 아버지께서 끄는 손수레 위에 얹으신다. 겨울 동안 아버지께서 알뜰살뜰 보살피신 비닐하우스의 삼동추와 골파가 뿌리째 뽑혀 손수레에 잔뜩 실려 있다. 미나리깡에서 맛물로 베어낸 미나리도 여남은 단 실려 있다. 그 위에 깻자루를 얹으신 어머니는 시간 늦지 않게 학교 잘 가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신 뒤에 손수레를 밀며 안개가 뿌연 새벽길을 나서신다. 내일은 소풍날이다. 부모님이 장을 보러 가신 까닭은 우리 형제들 소풍 도시락을 좀 잘 싸주시기 위해서이다.

학교를 가서도 온 종일 어머니께서 봐오실 장바구니 생각을 했다. 학교를 파하자마자 집으로 달려 왔다. 부모님은 벌써 장에 다녀오셨다. 아버지께서는 들에 나가시고, 어머니는 부엌에 계신다. 부엌으로 들어가 본다. 어머니께서는 머리를 쿡 쥐어박으시면서,

"인석아, 사내 녀석이 부엌엔 왜 들어오나?"하신다.

"뭐 만들어 주는가 알고싶어서..."하면,

"우리 막내 소풍가는데, 맛나는 거 만들어주지!"하신다.

"정말? 많이 싸 줘야 해요."하면,

"그래, 그래, 많이 싸줄게. 어서 들에 나가 아버지 도와 드려라."하며 쫓아내신다.

등을 떼밀려 밖으로 나오긴 하지만, 아버지 계시는 밭으로 나가는 건 아주 싫다. 틀림없이 고추 모종을 붓고 계실텐데, 대꼬챙이를 구부려 고추 모종 위로 콧고 비닐을 덮고 계실 것이다. 그러면 비닐 두루말이를 들고 고랑 이 쪽 저 쪽을 달려야 한다. 그래도 큰맘을 먹고 밭으로 간다. 예상대로 비닐하우스 만드는 걸 돕는다. 비닐을 덮으면서도 집에서 어머니가 만드는 반찬이 연신 궁금하다. 김밥을 싸주실 테니까 김을 사오셨을 것이다. 당근이랑 단무지도 장바구니에 들어있을 터이지만, 게맛살도 사오셨는지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내내 기분이 떨떠름하다.

드디어 들일이 끝나고 집으로 왔다. 냄새가 마당에 가득하다. 미나리를 썰어 밀가루 반죽에 버무려 전을 부친 냄새다. 작은 솔에는 밤과 땅콩을 삶는 냄새도 난다. 뒷집 육손이네 집에서도 무슨 냄새가 담을 넘어 전해 온다. 작년 가을 소풍 때 육손이는 달걀말이를 해 왔던 생각이 떠올랐다.

"엄마! 달걀말이!"하면서 떼를 썼다.

집에 들어설 때, 암탉이 화를 치면서 '꼬꼬덕꼬꼬'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께서는 헛간에 가서 달걀을 꺼내 오라신다. 가마니 네 귀퉁이를 사방 기둥에다 묶은 둥우리는 높아서 발돋움을 해도 들여다보이지 않는다. 손을 뻗쳐 가만히 손을 넣어보니 다행히 달걀은 두 개나 있었다. 하나는 아직 따뜻하다. 암탉이 근처를 서성이지만 이 녀석을 속이는 건 식은 죽 먹기다. 보리쌀을 한 움큼 가져가서 '구구~'하고 앞마당에 뿌리면, 그리로 정신없이 달려든다.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께 부탁을 했다. 끝만 깨뜨려 쏟아내고는 껍질을 달라고.

껍질을 들고 살펴보니 얼마나 깨끗하게 비워 났는지 흰자가 겨우 한 방울 남아 있다. 쌀단지를 열고 쌀을 한 움큼 조심스레 달걀 껍질에 넣었다. 물도 조금 부어 넣는다. 저녁밥하느라고 장작을 지핀 아궁이 입구 재에다가 달걀 두 개를 살그머니 밀어 넣는다.

"이거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요!"

하면서 어머니를 쳐다보니,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신다.

조금 전에 파를 썰어 넣은 달걀말이 냄새가 난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한 개 집어먹으려고 덤뻐더니, 어머니께서는 싹 감추어 버리고 내어주지 않으신다. 할 수 없이 아궁이를 뒤져 달걀 껍질을 두 개 꺼냈다. 고소한 냄새가 아주 진하다. 작은 숟갈을 집어 들고 껍질을 조금 더 깨내고는 떠먹었다. 맛이 기가 막힌다. 고소하고 오들오들한 달걀밥. 밥알도 적당히 누어서 노릇노릇하다. 그러나, 이 행복도 잠깐이다. 학교에서 늦게 돌아온 형에게 그만 달걀밥 한 개를 빼앗겼다. 억울하지만 참는 수밖에..... 사실 혼자 두 개 다 먹었다는 걸 형이 알면 내일 소풍은 괴로운 소풍이 될 터이므로 한 개만 먹는 것이 아주 좋다.

헛제삿밥

요즘은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실효과 때문인지 얼음이 잘 얼지 않는다. 하지만 삼십년 전만 해도 겨울은 혹독하리만큼 추웠다. 입은 옷이 헐벗은 탓도 있었지만, 북녘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정말 매서웠다. 냇물도 겨울 접어들며 한번 언 뒤에는 버들개지가 눈을 떠도 녹지 않았다. 설에 떡국을 끓일 가래떡을 뽑는 물레방앗간은 동력을 얻기 위해서 여름부터 보를 잘 막아야 한다. 가을에는 버를 찢고 겨울에는 떡을 빼는데, 냇물을 막은 보가 터져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되면 온 동네가 명절을 쇠지 못하는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것이다.

물레방앗간 뒤로 가서 어른 키보다 두 배도 더 되는 물레방아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안이 빙빙해진다. 고드름을 주렁주렁 달고도 보포랑물이 쏟아지면 그 큰 바퀴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돌아간다. 거기서 얻은 동력이 축을 통하여 방앗간 안으로 전달되고, 피엃줄을 타고 가루 뿜는 기계로 연결되기도 하고 가래떡 뽑는 기계로 연결되기도 했다. 떡판에 곰배로 쳐서 손으로 비벼 가래떡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수월했다. 그리고 떡도 훨씬 더 단단했다. 따뜻하고 물랑물랑한 떡이 기계 주둥이에서 빠져나와 물 속에 잠기면 함지박에 담을 적당한 길이가 되도록 가위로 잘라 담는다.

떡 담긴 함지박을 삼베 보자기로 덮어 아버지께서 지게에 지고 집에 도착하시면 형제자매들은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가래를 마구 집어 들고 뚝뚝 잡아떼서 먹는다. 어머니께서야 늘 혼내시지만 심하게 나무라는 투는 아니므로 아이들은 거의 한 가래씩 들고 나가 골목으로 다니며 쭈걱쭈걱 씹어먹는 것이다. 아직 떡을 뽑지 못한 집 애들은 그걸 한 토막 얻어먹으려고 별별 야양을 다 떨어댄다. 한 이틀 꾸들꾸들 말라가면 밤마다 화로 위에 부젓가락을 놓고 떡을 구워 먹감 홍시에 찍어먹는 맛도 참 좋았다.

어느 해인가 아주 큰 추위가 닥친 일이 있었다. 물레방앗간 보의 물이 바닥까지 다 얼어버려 방앗간이 열흘 이상 쉬게 되자, 명절 준비에 바빠던 온 마을이 갑자기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방앗간에서 떡을 빼 먹는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예전에 쓰던 떡판과 곰배를 다 치워버린 뒤였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이야 좀 덜 먹어도 괜찮지만, 조상에게 올릴 떡국은 끓여야 설을 쉴 수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바쁜지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떡판이 없는 집은 이웃집 떡판을 순서 정해놓고 빌리기도 하고, 아주머니들은 밤잠도 못자고 떡가래를 비벼 만들었다. 이러구러 어떻게 하든지 정월 초하루 설날에는 차례 상에 떡국을 올렸던 것이니, 기계가 말을 듣지 않으면 뭐든 포기하고 마는 요즘 사람들은 그 정성을 본받아야 할 일이다.

어머니와 누나가 잠 설치며 썰어놓은 떡은 다 마르기도 전에 상당수가 아이들 주전부리 감으로 사라진다. 한 움큼씩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한 개씩 꺼내먹는 재미가 쏠쏠했다. 떡을 좀 많이 뺀 집에서는 길쭉하게 썰어놓은 떡으로 티밥을 티우기도 했다. 쌀도 티우고 콩도 티우고 옥수수도 티우지만 떡도 티웠었다. 뽕! 하며 기계가 열리는 순간 아예 귀를 막고 돌아앉는 계집애들도 있었지만,

김이 풀썩 나고나서 그물로 된 통안을 보면 티밥이 한가득 쏟아져 나와 있는 것이다. 그 티밥을 자루에 담아 집에 가져오면 아이들의 군 주전부리 감은 한 가지 더 늘게 된다. 어머니는 콩티밥이나 쌀티밥에 조청을 발라 고루 퍼서는 칼로 썰어 말리는데, 잘하면 이월까지 손님 접대용 과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모두를 시장에서 바로 사다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편하기야 하지만 이게 더 살기 좋아진 결과라고 하기엔 뭔가 좀 어쭈잡은 구석이 있다. 지하에 계시는 조상들께서도 이렇게 차리는 제사상의 인스턴트 식품에 입맛을 잃어 명절이 되어도 자손들 집엘 오시지 않고 다른 데로 나들이 가서서, 우리는 조상도 안 오시는 빈 쟈상에다 대고 헛제사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랫목

저녁을 먹고 나면 벌써 바깥은 어둑어둑해지고, 보름이면 달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좀 춥긴 하지만 아이들이 동네어귀 샘터 옆으로 모일 것이다. 칠달이네 논이 샘터 바로 앞인데, 짚단을 아직 그대로 쌓아 놓았기 때문에 숨바꼭질하기가 희한하다. 며칠 전 똥태란 녀석은 짚단 더미 속에 들어가 숨었다가 잠이 들어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형한테 한 대 쥐어 박히기도 했다. 같이 숨바꼭질 하던 녀석들도 그렇지 찾아보고 못 찾으면 불려라도 보아야 하는데, 어른들한테 혼난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들 가버려서 하마터면 똥태란 녀석 얼어 죽을 뻔했다.

바람이 뽕뽕 불어도 아이들은 두어 시간 달밤을 휘젓고 다니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들 간다. 바짓가랑이 털고 들어오라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는 중 마는 중 대강 툭툭 소리만 내고 방으로 들어가면, 어머니는 호롱불에 바느질을 하시다가 그래도 막내아들이 귀여우신지 아랫목 이불을 들춰 손발을 넣으라고 하신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때 누나는 꼭 낮에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일러바친다. “엄마, 저 자숙아가 학교 갔다 와서 아버지 여물 써는 것도 안 돕고 답다 놀로만 땡겼데이. 아버지 혼자 여물 써는 기 영 안 됐어서 내가 작두 밟았잖아!”

“놔도라, 마! 철 들만 지가 다 알아 안하겠나?”

어머니의 관대한 처분에 의기양양해 하며, 누나 악을 올린다.

“누부야! 니는 딱 한분 썬 걸 가지고 머 그리 그래싼노? 나는 맨날 씨리는데...그라고 누부야 니 자꾸 그라만 나도 무슨 말 해뵈데 이!”

“아, 됐다 마. 니들 둘이 맨날 일러바치는 거 거기 그거 아이가?”

이렇게 한참 손발을 녹이고 나면 배가 슬슬 고파오기 시작한다.

“엄마! 머 좀 묵을 거 없나?”

“그라이까네 배 꺼진다고 나가놀지 말아라 안 카드나? 담 밀 무시구디이 가서 무시나 두어 개 내 오너라. 니는 얼릉 부엌에 가서 도매랑 칼 가주오고!” 뒷말은 누나 보고 하는 소리다. 누나가 고 입을 참을 리 없다.

“저 머시마 땀에 뚝 귀찮아 죽겠데이. 무시 꺼내 오는 집에 부엌에도 갔다 오너라.”

“야는! 가가 부엌살림을 아나? 들어갔다가 자빠지거나 하지...”

누나는 입을 비죽하면서 부엌으로 나간다. 그러나 그렇게 싫지 않은 눈치다. 무시를 꺼내 오면 항상 자기도 같이 먹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무 대강이를 썩둑 잘라내고 서너 토막으로 썬 뒤, 손톱으로 껍질을 돌려 까서 파르스름한 무 대가리 찜을 주신다. 아예 내복바람에 이불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껍질 벗긴 무 토막을 버적 깨물어 먹는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그만이다. 다른 한 개는 썰려서 사랑채로 누나가 가지고 나간다. 칠달이네 아버지가 놀러 오셔서 아버지랑 장기를 두고 계시기 때문이다.

조선무시는 너무 매워서 많이 먹지는 못한다. 두 조각만 먹으면 입에 매운 기가 얼얼하다. 뿌리찜으로 갈수록 너무 맵기 때문에 덜 먹고 내놓는다. 껍질이나 뿌리께는 어차피 돼지죽 끓일 때 같이 넣고 끓일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버리지는 않는 것이다.

이러다가 잠이 들면, 어머니께서는 막내아들을 돌려 눕히고 베개를 고아준 후 호롱불을 훅 불어 끄고 누나와 몇 마디 나누시다가 같이 잠이 든다. 아랫목에 어머니, 막내아들, 누나의 발들이 모여 그 따뜻함이 더해지면서 잠이 깊이 든다. 새벽녘 아랫목이 식을라치면 일찍 일어나신 아버지께서 군불을 한 주먹 더 넣어주시기 때문에 안방 세 식구는 새벽까지 한번 깨는 일도 없이 따뜻하게 잠을 잔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상주 화령 지역에는 시월 초에 우박이 내려, 피땀 흘려 농사지은 사과와 배들이 폭폭 살이 패이고 배추도 아주 망가져 버리는가 하면, 나락 이삭도 훑어 버린 듯이 낱알이 다 떨어져 나간 것이 방송에 보도되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금년에는 10월 초순도 지나지 않아, 설악산에 살얼음이 얼고 봉화 춘양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하였다. 개천절 즈음하여 소백산 도솔봉 근처는 단풍도 제법 붉었다. 지난여름 그렇게 덥더니 추위가 이렇게 일찍 찾아올 줄 어떻게 알았으랴.

예천 비행장 앞 도로변에는 수수가 익어가고, 을씨년스럽게 허수아비도 기우뚱하니 넘어지기 직전이다. 그래도 관광지마다 밤이나 땅콩이나 고구마가 즐비하게 쌓여 있고, 찰옥수수 강냉이는 뽕뽕 김을 뽐으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인삼축제로 떠들썩한 풍기에서 예천 넘어가는 고갯마루 근처 과수원에는 빨간 사과가 잘도 익어가고 있다.

사실 사과야 뭐라 해도 어릴 때 먹던 국광이나 홍옥이 사과답다. 국광은 알도 굵지 않다. 맛이 옹게 들려면 가을도 깊어야 한다. 너무 단단해서 우선 먹기가 별로다. 그렇지만 냉장시설이 없는 옛날에는 겨울 내내 두고두고 제맛대로 먹을 수 있는 사과는 국광이 제일이다. 홍옥도 마찬가지다. 요즘 부사 같은 사과야 맛이 덜큰하고, 단물이 많고, 크기도 아이들 머리통 만하지만, 어디 홍옥 맛에 비교할 수가 있는가? 붉다 못해 숨넘어가게 새빨간 홍옥을 가지에서 직접 따 옷에 쓱쓱 문질러, 껍질이 반질반질하게 되면 한입 베물어 먹는다. 새콤한 맛! 그것이 바로 사과 맛이다. 이 홍옥을 서너 개 뺨에 과즙을 튀기며 깨물어 먹고, 아래 위 이빨을 슬쩍 붙이고 입술을 벌려 바람을 들이마시면, 어금니가 빠져나갈 것처럼 시리다. 이빨이 곱아 더 먹으래도 먹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사과 맛이다. 여기에 비하면 요즘 사과 맛이야 니맛도 내맛도 없는 편이다. 매콤하기는커녕 그저 달콤하기만 한 서울 음식과 같다.

벌써 감나무 아래에는 홍시가 똑똑 떨어져 별경게 흙을 물들이다가 시커멓게 변해가고 있다. 홍시는 이제 과일 축에도 못 낀다. 떨어진 홍시를 보고 주워 먹으려는 아이들도 없다. 휴일이 되면 여남은 명 모여,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산중턱 밭에 서 있는 감나무를 찾아가 떨어진 홍시를 주워 먹다가 그래도 배가 덜 차면 감나무에 올라 따먹고, 덜 무른 홍시는 손가락으로 주물러 뽕은맛이 가지 않았는데도 먹고, 입속 이빨에 뽕은 버늱가 끼면 헛바닥으로 이리저리 훑아 뽕내며 또 주워 먹고 하다가 변비가 되어 뒷간에 가 울면서 똥을 누던 그런 세월이 저만치 지나가 버렸다.

온 산길에 도토리 꿀밤이 지천으로 떨어져 굴러도 마을 가까운 곳이 아니면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다. 줍더라도 묵을 만들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다. 옛날 아이들은 도토리를 주워다가 도장도 찼다. 서툰 글씨지만 자기 이름을 새긴 게 너무 신기하여 이장님 집에 가서 인주를 빌려다가 온 책이나 공책에 그 도장을 찍어보곤 하였다. 사나흘 있으면 도토리 도장이 말라버려 가운데 속 들어가서 더 이상 글자가 찍히지 않는데도 겨울이 될 때까지 호주머니에 도토리 도장을 자랑스레 넣어가지고 다녔다.

자연 식품은 이제 아무 것도 귀한 것이 없다. 아이들이 먹는 거라곤 전부 인스턴트식품이다. 도시 아이들이 시골마을에 놀러 왔다가 밭두렁에 뉘 놓고 간 똥은 파리가 알을 슬어도 부화가 되지 않는다. 그 똥은 썩지도 않아 햇볕에 따글따글 말라서 나무 작대기나 플라스틱 우산 손잡이처럼 변한다. 눈이 와서 덮어버릴 때까지 그냥 밭두렁을 지키고 앉아있을 뿐이다.

‘똥’ 이 된 ‘껌’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가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 책걸상 고르기였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앞 번호이고, 좌석 순서도 번호대로 앉는 것이 대부분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방학기간 동안 까마득한 선배님들의 동창회도 있었고, 무슨무슨 새마을 교실 등이 개최되는 동안 책걸상을 이리저리 옮기고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있었으므로 본래 맞추어 놓았던 책상 크기가 뒤섞여 있기 마련이었다. 어떤 교실은 무엇을 했는지 책걸상이 교실 뒤쪽으로 바짝 밀려나 있는 수도 있었다.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 책상을 옮기던 아이 하나가 자지러질 듯 소리를 지른다.

“에이 씨! 손 다 베리잖아! 이기 누 책상이고? 가시나들 지랄이다.”

대개 여학생들은 껌을 씹다가 수업 시간이 되어 더 이상 못 씹게 되면 책상 밑에다가 껌을 붙여 놓는다. 수업 시간에 껌을 씹다가는 선생님께 걸려 혼쭐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되면 다시 씹으려고 책상 밑에다 붙여 놓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걸 잊어먹고 놔두게 되

니 여름 방학 동안 더위에 물렁해 질대로 물렁해 저서 책상을 양손으로 잡고 들면 두세 개의 손가락에 달라붙어 기다란 실처럼 늘어나는 것이다. 더럽기도 더러우려니와 기분이 아주 찝찝해진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여학생들을 욕하는 소리가 터져 나온다.

“가시나들은 와 그리 더럽겐노? 거다가 와 껌을 붙이 놓노 말이다.”

한 녀석이 이렇게 중얼거리면 맞장구를 치는 녀석이 꼭 생긴다.

“니는 책상에만 붙이는 줄 아나? 껌 씹다가 집에 가면 비름뺨에도 얼마나 붙이 놓는데!”

여학생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아이 자숙아들아, 너거는 그렇게 깨끗한 것들이 낫잖은 와 안 씻고 다니노?”

“맞다 맞아, 저 자숙아는 지도 더러분 짓 하는 기 와 말이 많노! 저번에 우리 고무줄 할 때, 칼 들고 지나가며 고무줄 끊은 기 저 자숙아 맞제?”

“와 아이라, 자들 누부야도 껌 디기 씹는데이. 저노무 자숙아 집에 갈 때 한분 떠다밀어야 하겠구만.”

사실 그랬다. 그리고 여학생만 그렇게 붙여 놓는 건 아니었다. 남학생들도 씹다가 그냥 뺨기가 아까워 적당한 장소에 껌을 붙여 놓기 일쑤였다. 하도 오래 씹어 더 이상 쫄기쫄기한 기운이 없어져서 퍼드러져야 ‘이제 껌이 똥이 되었다.’ 며 뺨어 버리곤 하였다. 요즘 껌은 계속 씹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옛날 껌은 확실히 이삼일 씹으면 찰기가 없어져 버려 씹는 맛이 없어지곤 했다.

그래도 껌을 사 먹을 수 있는 애들은 아주 행복했다. 6월이 저물어 밀이 익어 가면, 껌을 살 수 없는 애들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밀 이삭을 두어 줄기 훑어 밀알을 계속 씹는다. 한 시간 쯤 열심히 씹다보면 쫄기쫄기한 껌이 된다. 아마 밀기울의 질긴 성분이 그렇게 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 밀기울 껌은 진짜 고무로 된 껌보다 수명이 훨씬 짧았다. 한 시간도 씹지 않아 ‘똥’ 이 되기 때문에 금방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고무로 만든 진짜 껌이 생기기만 하면 완전 ‘똥’ 이 될 때까지 버릴 수가 없었기에 책상이나 벽에 붙여 놓았다가 다시 떼어내서 씹고 또 씹고 했던 것이다.

어쩌다가 미군들이 전투 훈련하느라 동네를 지나가는 일이 있는데, 이 미군들을 졸졸 따라다니면 더러 껌을 던져 주는 일이 있었다. 그런 껌을 한 개 얻으면 이걸 가히 빠이로트 구슬(유리 속에 팔랑개비 모양 색깔이 들어있는 구슬인데, 아이들이 그렇게 불렀다.) 열 개와 맞바꿀 수 있는 귀중한 물건이었다.

이제 평범한 추잉껌의 시대는 지나가고, 승용차마다 ‘자일리톨 껌통’ 이 거의 실려 있다. 모양도 네모지면서도 동글납작하고, 이빨에 붙은 음식 찌꺼기도 잘 제거해 주는 좋은 껌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 껌이 맛도 좋고 기능도 좋다지만, 그 옛날 우리 누나들이 ‘똥’ 이 될 때까지 씹고 씹다가 ‘비름뺨’ 에다 붙여 놓던, 그런 껌에다 비교할 수 있는 맛은 아니다. 역시 껌은 ‘똥’ 이 될 때까지 씹어야 진짜 껌 맛이 나는 것이다.

개꿈 돼지꿈

깜깜한 밤중에 곤히 잘 자던 막내 녀석이 공공 앓는 소리를 내다가 헛발질을 하고는 벌떡 일어나 앓는다. 잠결에도 엄마는 그런 아들을 더듬더듬 끌어당겨 꼭 안아준다. 녀석은 숨을 헉헉 몰아쉬며 엄마 품을 파고든다.

“와~! 우리 아가!” 이렇게 다정하게 물으면,

“옴마! 나 무서버!” 이렇게 대답한다.

호랑이가 막 따라와서 달아나다가 절벽에서 툭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그럴 때 엄마가 등을 토닥여 주며 하는 말이 바로 ‘개꿈’ 이란 말이다.

“그런 건 개꿈이란다. 절벽에서 툭 떨어지는 건 키 클라고 그카는 기~고…….”

그러면 아이들은 금방 다시 잠이 들곤 한다. 이렇게 아이가 꿈을 꾸다가 깨고, 다시 잠이 들고 하는 사이에 어른들은 그만 잠이 달아

나 버린다.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이 머리 속을 맴돈다. 군대 간 말이 생각이며, 돈 벌겠다고 작년에 이웃집 순자와 함께 서울로 올라간 복순이 생각에 새벽잠은 아주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몸이나 성히 잘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으며 잠은 편히 자는지 어머니는 자신도 몰래 한숨을 푸욱 내쉰다.

막내를 토닥여 재우고 슬그머니 일어나 부엌으로 나간다. 나무 소반에 하얀 대접을 한 개 얹어 들고 샘가로 가서 소리나지 않게 물을 길어 올린다. 정성스레 그릇에 따른다. 대접 밑을 손바닥으로 한번 쓰다듬어 훑치고는 소반에 얹어 들곤 장독대로 간다. 가장 큰 간장독 위에 소반을 얹어놓고 동녘에 떠오른 햇볕을 향하여 깊숙이 절을 올리며 두 손바닥을 비스듬히 비비면서 치성을 드린다.

“천지신명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빌고 비옵나이다. 우야든동 군대 간 우리 맏아들 몸 성히 잘 있구로 돌바주이소. 서울로 돈 벌라고 간 복순이도 요분 설에는 돈 왔지마는 오는 추석에는 꼭 니리 오게 해 주이소. 그라고, 읍내 중학에 다니는 둘째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하도록 돌바 주이소. 우리 막내는 잔병치레가 많사오니 어서 무력무력 커서 걱정 안하구로 해 주이소. 천지신명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복순 아베, 술도 고마 좀 묵고, 노름판에는 아예 얼씬도 않구로 맘을 좀 다잡아 주이소. 내 하나는 아무리 고생시려 바도 개안심더. 우리 시어머미도 무병장수하구로 도와 주이소. 내 하나는 마 우에 돼도 개안심더. 우리 가족 올해 내내 다 핀쿠로 돌바 주이소.”

같은 소리를 수십번 하고도 정성이 모자랄까 두려워 두 번을 더 빌고 동녘이 부옇하게 새고 나서야 소반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다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새벽마다 빌고 비는 어머니의 정성 덕분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로또복권에 온 정신이 팔려 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다. 복권을 산 사람이나 살 사람들은 돼지꿈 꾸기를 바라고 기다린다. 돼지꿈은 옛날부터 재수의 상징이었다. 옛날 이야기의 대부분이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주제로 삼고 있지만, 권선징악이 아닌 이야기가 무슨 교훈이 있으며,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착하지 않은 흥부가 복을 받고, 악하지 않은 놀부가 벌을 받는다면 우리 삶의 축이 어긋나 뺄고덕거릴 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노력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꿈은 아름답다고 여긴다. 아름다운 꿈은 정말 아름답다. 그러나 흥몽도 많다. 그러면서 아주 나쁜 꿈은 오히려 좋다고 하고, 아주 좋은 꿈은 이상하게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면서 조심하기도 한다. 나쁜 가운데서 좋은 일을 기대하기도 하고, 좋은 일 가운데서 방자하기 쉬운 마음을 경계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의 삶이란 허망하고 무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생무상(人生無常)!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개꿈’ 일지도 모르겠다.

삼복(三伏) 더위, 복달음

하지(夏至)를 기점으로 하여 세 번째 경일(庚日)을 초복(初伏) 네 번째 경일을 중복(中伏) 그리고 입추(立秋)부터 첫째 경일을 말복이라고 한다. 이들을 통틀어서 삼복이라고 한다. 이때의 더위를 삼복더위라 하여 일년 중 가장 더위가 심한 때이다. 그리고 하지 후 네 번째 경일과 입추 후 첫 번째 경일 사이가 십일이 넘으면 월복(越伏)이라 하여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이 된다.

초복날에는 개장국을 끓이고 소주를 가지고 계곡이나 정자나무 밑에서 흥겹게 먹고 마신다. 이것을 복달음 이라고 한다. 개장국은 특히 복날에 먹어야 보신이 되고 벽사(邪;삿된 기운을 물리친다는 뜻)도 하며 질병도 쫓고 더위를 잊게 된다고 해서 먹는다. 햇병아리를 잡아서 찹쌀과 마늘 대추 밤 인삼을 넣고 고아서 먹기도 한다. 이것이 삼계탕이다.

이때는 또한 삼[大麻]이 다 자란 시기이므로 삼을 삶는 때이기도 하다. 삼을 삶아 껍질을 벗겨내서 삼을 삶고 나면, 삼의 속대가 남는다. 이게 지름대인데, 아주 가볍기 때문에 지붕을 엮을 때나 벽을 바르기 전에 이 지름대로 골격을 미리 짜서 흙을 발랐던 것이다. 그러나 지름대는 삼을 삶아 내기까지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물건이라서 사람들의 정이 배어 있다고 생각한 물건이다. 지름대로 사람을 때리면 살도 찌지 않고 키도 자라지 않는다며 이것으로 장난도 못치게 한 것을 보면, 쓰임새가 아주 많아서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이란 걸 알 수가 있다.

어릴 때, 우리집에는 말 한 마리 개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닭 열댓 마리 토끼 대여섯 마리 등을 길렀는데, 잡는 시기가 다 달랐다. 토끼는 초겨울에 잡아 먹는데 토끼탕도 맛있지만 가죽을 벗겨 귀마개를 하기 위함이었고, 닭은 평소 달걀을 받아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만 귀한 손님 왔을 때 대접하기 위하여 잡는 동물이었고, 돼지는 누나 형님 시집 장가 보내는 날 잔치에 쓰기 위함이었고, 개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동물이었다. 말은 일만 시킬 뿐 잡아먹히는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큰 동물이었다. 그러나 너무 늙어 팔려가는 날에 울기도 한 정 깊은 동물이었다.

우리집은 대체로 암개를 한 마리 길렀다. 가을이 되면 암내를 내고 들판을 쏘다니다가 이웃 개들과 어울려 새끼를 배곤 하였는데, 이른봄에 새끼를 대여섯 마리 낳으면 새끼 중에서 가장 토실토실한 암강아지 한 마리를 남겨두고 이웃에 나눠주곤 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초복이 되면 집에서 기르던 똥개를 잡아 식구들과 친구들이 복달음을 하도록 하였는데, 나는 이게 싫어 어린 마음에 미칠 지경이었다. 복날 아침이 되면 중가이아재라는 할배가 우리집에 와서 개 목을 묶어 팽이로 대가릴 때려 숨지게 한 후 감나무에 매달고는 껍질을 벗겨내곤 하였다. 나는 이게 보기 싫어서 막 울어대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중가이할배는 기다리다가 내가 학교에 가고 난 뒤에 개를 잡았다. 그러나 학교를 파하고 집에 와보면 강아지가 제 어미의 뼈다귀를 갉아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강아지를 건어차곤 하였다. 강아지는 깨갱하며 울면서도 뼈다귀를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꼴이 보기 싫어 강아지를 미워하기도 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 놈을 데리고는 들로 산으로 쏘다니기도 하였다.

갓 서른을 넘기고 이삼 년 간, 환절기마다 몸이 아파 병원을 다니다가, 어머니께 우스개 삼아 볼멘 소리를 한 적이 있다.

"내가 어릴 때 보약을 하나도 안 먹여 이렇게 자주 아픈 거지요?"

어머니께서는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자식한테 이런 말 들으니 약간 화가 나신 말투이셨다.

"야 이놈아! 열 살 되기 전에는 초복날마다 약뽕아리에 인삼 두 뿌리 넣어서 꼭 해 미기판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남모르는 벌 받을라 이놈아."

그래서 그런지 이 말을 듣고부터 몸살이 없어진 듯하다. 그 이후로 건강도 좋곤 괜찮았다. 이런 걸 보면, 자식들에게는 공치사도 좀 해가며 살아야 하는 모양이다.

선도부 눈을 피해...

철도 들지 않아 초등학교를 입학하였다. 집에서 학교가 5km나 되어 멀기도 하려니와 학교가 우리 동네보다 더 상류에 자리하고 있다보니, 등갯길이 곧 오르막길이었다. 왼편 가슴에 코 닦는 수건을 뺨침으로 채워 달고 한 시간이나 넘어 걸어야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입학을 한 지 한 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그날도 학교앞 교문 오르막길을 다 올라가자 이상한 형아들이 죽 늘어서 있었다. 아직 글자를 배우기 전이라 팔뚝에 선도부라고 쓴 것은 읽을 수 없었고, 빨강 색으로 줄을 친 것은 볼 수 있었다. 가운데 좀 키가 큰 형아는 빨강 줄이 세 개나 있는 완장을 차고 있었고, 세 명은 두 줄 완장, 네 명은 한 줄 완장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석 줄은 선도부장, 두 줄은 6학년 형아들, 한 줄은 5학년 형아들이었다.

우리 어린 1학년들은 그 앞으로 불려가지 않았으나, 3~4학년 형아들은 거의 대부분이 선도부 앞으로 불려가서 이름을 적히고 옆드려뺨쳐를 하곤 했었다. 우리는 선도부 눈치를 슬슬 보며 살그머니 교문을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아슬아슬할 수가 없었다.

4학년 때였다. 구슬을 5개 씩 동그라미 안에 넣고 던져 맞추기를 해서 동그라미 밖으로 쳐내는 사람이 그걸 차지하기로 하고 구슬치기를 했다. 한참 판이 무르익는 데, 5학년 선도부 한 명이 왔다. 그 형아는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구슬을 아무 말도 없이 호주머니에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우리들 손에 들려있던 구슬까지도 다 빼앗았다. 이유는 따먹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구슬을 쳐서 따먹고 하는 것은 어른들로 말하면 노름에 해당되는데 그런 버릇을 기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 꼬마들은 말도 못하고 눈만 멀뚱거리며 빼앗기는 수밖에 없었다.

5학년이 되자 담임 선생님께서 선도부를 뽑는다고 하셨다. 희망을 받아 하는 것이 아니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행동이 바람직하고 공부도 잘 하고 옷차림도 반듯해야 뽑힐 수 있다. 그래야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후배들을 잘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은근히 선도부원 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선생님 눈에 들려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했었다. 그런데 병철이라는 아이는 누가 보아도 선도부원이 될 수 없는 아이였다. 친구들과 싸움도 잦고, 후배 아이들을 슬금슬금 괴롭히는 데다가, 여학생들 고무줄 놀이만 하면 못을 두드려 만든 칼로 끊고 지나가는 악동이었다. 드디어 일주일 후 선생님께서 선도부원이 될 아이들의 명단을 발표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놀라고 말았다. 병철이가 명단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인즉, 병철이는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학교 지붕 콜타르 칠을 할 때 6학년을 도와 많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던 병철이의 봉사정신에 놀라는 한편, 그저 착한 행동이나 하고 선생님 말씀만 잘 따르면 되는 줄 알았던 유치한 생각에 스스로 후회가 되었다. 역시 선생님의 눈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줄 아는 눈이셨던 것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읍내 중학교에 들어간 나는 어느 날 아침에 비가 오는 것을 보고는 초등학교 때처럼 검정 고무신을 신고 등교를 했었다. 중학생이므로 당연히 운동화를 신고 다녀야 하는 줄 알았지만 비가 오는 날 고무신을 신고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 없이 교문을 들어서다 말고 선도부에게 붙잡혔다. 선도부원 선배 말이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였다.

다른 선도부원도

"야, 너 고무신 신고 학교 오면 안된다는 거 몰라?" 했다.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나에게 저편에 서있던 선도부원 선배 하나가 다가왔다. 그는 바로 초등학교 시절 우리 구슬치기를 방해하고 구슬을 다 빼앗았던 그 선배였다. 그렇게 밟던 그 선배가 그때는 얼마나 반갑던지 그때 그 느낌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야, 너 서촌초등학교 출신 맞지?"

"예!" 라고 크게 대답했음은 물론이다.

그는 다른 선도부원에게 이야기했다.

"얘는 나와 같은 초등학교 후배인데 촌놈이라서 이런 거 잘 몰라! 그냥 보내 주자."

다른 선도부원 선배들은 막 웃으면서

"야아 정말 촌놈이구나. 그래 봐 주자. 하지만 다음부터 이런 거 신고 오지 마?" 했다.

무사히 교문을 벗어나 교실로 들어가면서 그 선배가 얼마나 고맙던지 몇 년 전 구슬 뺏긴 일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다.

홍수 나던 날

4학년 때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은 해였다. 6월까지 가물고 가물다가 7월 중순에 늦은 장마가 시작되더니, 방학에 들어서도 계속 비가 내렸다. 면사무소의 입간판은 『한해대책본부』에서 『수해대책본부』로 바뀌었다. 학교는 7월 말에 방학을 했지만, 우리 꼬마들은 별로 할 일이 없었다. 어른들이야 도롱이를 입고 보릿짚 모자를 쓰고 삽이나 괭이를 들고 논에 물꼬를 보러 다니느라 바빴지만, 비가 계속되니 아이들이야 처마 밑에서만 지내야 했고 저녁이 되면 담 밑에선 맹꽁이 소리만 요란했다.

7월 끝날 비가 많이 왔다. 새벽부터 쏟아진 비는 저녁때까지 주룩주룩 엄청나게 쏟아졌다.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종일 내리던 비는 밤중에도 그칠지 않았다. 마을 어른들이나 부모님은 자주 냇물을 보러 나갔다. 동네는 다행히 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냇물이 불더라도 마을이 물에 잠길 일은 없었지만, 냇가에 위치한 논밭들은 밭둑이 물에 쓸려 무너지고 나면 떠내려 갈 우려가 있었다.

이튿날 아침 잠시 비가 그쳤다. 아침밥도 먹지 않고 모두들 다리 위로 나갔다. 전봇대 만드는 나무를 교각 위에 걸치고 서까래 같은 걸로 그 위를 덮고 가에는 생솔가지를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만든 다리는 흙이 씻겨 내려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어서 다리 아래로 흘러가는 물이 보이고 다리 난간에 서서 시뻘건 황토물을 내려다보니 어지러운 지경이었다. 마치 배를 탄 것처럼 다리가 상류 쪽으로 막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다.

홍수를 구경하던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시뻘건 홍수 속에 가라앉았다 떠오르다 하면서 큰 돼지가 한 마리 떠내려가고 있었다. 아직도 살아있는 듯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아무도 건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닭도 몇 마리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닭들은 이미 죽은 채로 둥둥 떠가고, 짚검불이라든가 별별 쓰레기들이 다 떠내려가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숙직하던 아저씨가 얼굴을 시퍼렇게 하고 우리 집으로 달려오셨다. 비가 계속 와서 면사무소 마당이 물에 잠기자 갑자기 큰 구렁이가 한 마리 숙직실로 기어 들어왔다는 것이다. 면사무소에서 우리 집은 가장 가까웠다. 당시 청년이던 둘째 형님이 아저씨를 따라 갔다. 뱀을 쫓아내려고 간 것이다. 조금 있으니 형님은 노끈으로 모가지를 묶은 엄청나게 커다란 구렁이를 한 마리 끌고 왔다. 아버지께서 대경실색하셨다. '이렇게 큰 구렁이는 건드리지 않는 건데……' 하시면서 구렁이를 끌고 가서 돼

지우리에 던져 넣었다. 평소 우리집 돼지는 평소 뱀을 잡아다 던져주면 짹짹 하며 잘도 씹어먹는 돼지였다. 나도 따라가 그 장면을 보았는데, 뱀이 너무 커서 그런지 돼지가 구석에 처박혀 짹짹 소리만 지를 뿐 뱀 근처로 오지를 않았다. 돼지가 겁을 낼 만치 큰 뱀이었던 것이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우리가 안 보이는 곳으로 뱀을 들고 가서 삽으로 토막을 내서 흐르는 홍수에 띄워 떠내려 보내셨다. 나는 살려 주지 왜 죽여야만 하느냐고 물었다. 아버지께선 이렇게 대답하셨다.

"한번 잡아서 애를 먹인 뱀은 살려 보내지 않는단다. 그놈을 살려 보내면 다시 찾아와 그 집에 반드시 해꼬지를 한단다. 저 뒷집 갑분네는 뱀을 잡아 놀리다가 놓친 적이 있는데, 그놈이 다시 찾아와 장독에 들어가서 죽는 바람에 그걸 모르고 일년 내내 그 더러운 간장을 온 식구가 먹었다. 간장을 다 먹어 바닥이 드러나니 그 밑에 뱀 썩은 게 한 마리 있었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런 더러운 간장을 먹게 되면 얼마나 징그러운까 생각하니 뱀을 죽여서 큰물에 떠내려 보내야만 했던 아버지가 잘 이해되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집에는 그해 재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 형님과 아버지께서 뜻하지 않게 크게 다친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그놈이 면사무소의 지킴이였던 말인가? 옛날부터 지킴이를 죽이면 어떤 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 미신이 내려오니까 말이다.

한가위 맞이하기

추석이 이른 해는 오려(올벼)논에서 벼를 서너 평은 베어다가 햅쌀을 찜어 놓아야 하지만 올해처럼 윤달이 든 해는 추석 전에 익은 벼가 있는 법이다. 찜쌀을 해달라고 동생들이 보채니까 아버지께서 한 지게쯤 벼를 베어 그네(벼훅이)로 낚알을 터셨다. 어머니께서 찜쌀을 해 놓으면 한 주먹씩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그 구수한 맛에 행복했었다. 반달이 떠오르면 벼를 베다가 탈곡을 해야 추석에 햅쌀밥으로 메를 올릴 수가 있다.

아버지와 형님들은 집안 어른들과 힘을 합쳐 선산에 올라 벌초를 하신다. 요즘처럼 예초기(刈草機)가 없던 시절이라 낫으로 베야만 했다. 자손들이야 힘은 들었지만, 돌아가신 조상들이야 편안하실 터이었다. 예초기의 그 부르릉 하는 소리가 안 들렸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손으로 깎는 일이야 얼마나 정성스러운가? 풀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일도 없고, 흙이 파이고 돌맹이가 나르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한가위 명절맞이하기의 가장 큰 준비 행사는 그릇 닦기이다. 유기(鑪器) 그릇은 주석과 구리의 합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리에 끼이는 푸른 녹이 슬기 마련이다. 푸른 녹은 독성이 커서 녹이 쓴 채로 음식을 받아먹으면 해롭기도 하려니와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윤이 반짝거리도록 매매 닦아야 한다. 오래 묵은 기왓장을 돌로 뿔아서 곱게 가루를 낸 다음 물에 적신 짚에 묻혀 그릇을 돌려가며 뽉뽉 문지르면 푸른 녹만이 아니라 시커멓게 찌든 때마저 벗겨져 닳그릇은 윤을 낸다. 제기(祭器)만이 아니라 일상용 밥그릇 국그릇 찬그릇들이 모두 닳그릇이기에 닦을 숫자도 만만찮다. 시어머니 며느리 딸네들까지 여남은이 봉당에 둘러앉아 그릇을 닦노라면 모처럼 대화의 장도 마련된다.

"악야! 나는 우에 애기가 두 살이 넘도록 아시가 없노? 일부로 안 맨드는 거 아이가?"

"아이고, 어머님도 그렇 거 아일시데! 아죽꺼정 젖을 몬 띠가 안 그런니까?"

"야야, 가 돌 지난 지가 운젠데 그라노? 얼릉 밥을 미기야 하지."

"알겠심데! 그래도 자꾸 젖가슴으로 아가 파고 들어싸서....."

"아를 그래 키우마 안 되니이라. 포시랍게 키운 자석 치고 효자 없니이마는..."

양력으로 9월 초에 추석이 들면 아직 대추와 밤이 갈색으로 익기 전이어서 아직 파르스름하다. 그러나 햇과일을 써야 하므로 제사상에 그대로 놓을 수밖에 없지만, 익지 않은 감을 제사상에 놓기는 조상에게 참말 죄송스럽기 그지없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붉은 색이 도는 놉을 골라 소금물 담긴 항아리에 삭힌다. 삭힌 감은 아무래도 더 익은 빛이 나기 때문에 제사상에 얹기가 덜 민망하다.

어릴 때, 아버지께 여쭙어 본 일이 한번 있다.

"왜 조율시리 순서로 제사상에 과일 놓니까?"

라고... 아버지께서는 당신도 어릴 때 할아버지께 물어서 알게 되었다면서 설명을 해 주셨다.

"집안에 따라 '조율시리(棗栗柿梨)'로 놓는 집안도 있고, '조율이시'로 놓는 집안도 있는데, 대추는 씨가 하나이기 때문에 임금을 뜻하니까 실과 중에 가장 으뜸이란다. 그러니 맨 동쪽에 놓는 것이고, 밤은 밤송이 하나에 대개 세 톨이 들어 있으니 삼정승을 뜻하므로 두 번 째 놓는 것이고, 감이나 배는 씨가 여섯 개라서 육판서나 육참판을 뜻하므로 그 다음에 놓는 거란다."

설명을 듣고 난 그때에야 실과의 순서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또 홍동백서(紅東白西)에 대해서도 여쭙어 보니 '대추와 같은 붉은 실과는 동쪽에 놓고, 배와 같은 흰 실과는 서쪽에 놓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제사상을 북쪽으로 놓거나 남쪽으로 놓거나 조상님 앉은자리가 항상 북쪽이 되니 제사상 오른쪽 끝에 대추가 놓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머니께서는 추석빔을 장에 나가 마련해 주셨는데, 대목장에 부모님이 가실 때는 으레 닭은 여남은 마리, 곡식이 서너 말, 갖가지 채소 수십여 단이 소달구지에 실려 나가곤 했다. 그걸 팔아 돈을 사야 조기라도 한 손 사고, 내 바지와 저고리, 신발 등도 생기는 것이었다. 허지만 키가 더 자랄 것을 염려해 늘 너무 큰 옷을 사다 주시는 까닭에 몸에 맞는 옷을 입어본 기억이 없다. 아마 사오십 대 대부분의 어른들은 다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소매도 두어 번 걷고, 바짓가랑이도 한두 번 접어서 입으려면 얼마나 불편하였던가? 그게 모두 너무 가난하게 살던 탓이라. 그러나 가난했지만 인정이 넘치는 한가위였다. 추석을 쇠고 나면 이웃끼리 장만한 음식을 그렇게 나누어 먹곤 했었다. 요즘은 나누어주어도 잘 먹지 않는 부침개들이지만…….

가을 운동회

"무찌르자 오랑캐~ 며칠 만이나~ 대한 넘어 가는 길~ 저기로구나~"

행진곡에 발 맞춰, 운동장 한 가운데 모여서 운동회 개막식을 마치고, 청군 백군이 두 줄씩 줄을 맞추어 1학년부터 응원석으로 돌아왔다. 무려 3주일이나 연습을 했는데도 1, 2학년 둘 중에는 발을 못 맞추는 아이들이 있었다. 선생님이 행진하는 아이들 옆을 따라가며 호루라기를 불어 주었으나 발을 맞추지 못하는 아이들. 그때는 발을 못 맞추는 게 큰 죄라도 짓는 것처럼 혼이 나곤 했었다. 친구들로부터 '바보'소리도 들어야 했다. 또 평소엔 발을 잘 맞춰 가다가도 선생님의 '앞으로 갔!' 구령만 떨어지면 팔과 다리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아이들도 서너 명은 있었다. 그런 아이들은 발맞춰 걷기 나머지 공부를 하기도 했으나 잘 고쳐지지 않아서 선생님들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남학생들은 옆에 흰줄이 있는 트렁크형 팬티와 런닝, 여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바지 아랫단에 고무줄이 들어있었다. 어릴 때 화상을 입어 허벅지에 흉터가 크게 나 있던 갑수네 누나는 하의를 길게 좀 길게 만들어 입었다가 사정을 모르는 선생님께 혼이 나기도 했었다. 머리엔 물론 비닐로 만든 흰 띠나 청색 띠를 둘렀다. 이것도 문방구에서 팔았는데, 그걸 못사는 아이들은 하얀 옥양목을 올려서 머리에 두르기도 했다.

오전엔 주로 육상경기가 있었는데, 6명씩 달려서 1, 2, 3등은 공책을 상으로 받고 나머진 응원석으로 돌아가야 한다. 연습할 때 자주 뛰어 보았기 때문에 누가 넘어지지 않으면 나는 으레 5등이었다. 던지는 걸 잘했지만 던져서 맞추기 하는 그런 경기는 없었다. 오전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바구니 깨뜨리기였는데, 1, 2학년 여학생들이 전부 출동하는 경기였다. 대바구니 두 개를 문중이로 싸서 만드는데, 그 속엔 별별 색종이가 많이 썰려서 들어있고, 바구니가 터지면 글씨가 크게 씌어진 현수막 같은 것이 밑으로 축 늘어지게 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멸공통일 반공창첩 등의 글이 씌어져 있었다. 그 바구니가 터져서 색종이가 쏟아지면, 응원석의 함성은 절정에 달하고 곧 이어 점심시간이 되는 것이다.

할머니께선 엄마 대신에 땅콩과 밤 삶은 것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그날나무 밑에서 기다리셨다. 김밥도 펼쳐 놓으시고 이웃집 아이들까지 다 불러서 자꾸 많이 먹게 하셨는데,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항상 배가 고프던 시절이었다. 보리밥으로 배를 키워 놓아 어른들보다 더 많이 먹기도 했다. 감은 다 익기 전이어서 단지에 넣어 삭혔으나 아직 푸른 기운이 그대로인 색깔이고, 김밥은 큰 멸치를 넣어 만들었으므로 꼭꼭 씹히는 게 많기도 했다.

오후 경기는 여흥 경기가 많았는데, 어머니들의 병 뺀어두고 달리기는 아주 재미있었다. 나무 막대기 끝에 실이 묶여져 있고 실 끝에 조그만 나뭇가지가 묶여 있어서 그걸 병 속에 잘 집어넣고 조심해서 들어올리면 병이 들리는 것이다. 이 병을 떨어뜨리지 않고 결승점에 들어가면 순위대로 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들의 옛먹기 경기도 아이들 배꼽을 쥐게 한다. 옛판엔 밀가루 속에 엿이 들어 있다. 손을 대지 않고 엿을 찾아 물고 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온 얼굴에 밀가루 칠이 되어 점잖은 할아버지들 얼굴이 우스꽝스레 변하는 것이다. 50년대 말이나 60년대 초에는 아직도 어른들이 한복 입고 갓 쓰고 다니던 분들이 많아서 밀가루 묻힌 모습이 더욱 우스운 장면이 되기도 했다.

면장님 지서장님 이장님들이 한편이 되어 학교 선생님들 편과의 공굴리기 경기도 있었다. 그래도 공을 많이 다루어 본 선생님들이 이기게 마련이었지만, 그것은 학생들의 일방적인 응원 덕분이기도 했으리라.

5~6학년 언니들의 편지줍기 달리기도 재미있는 경기였는데, 오전에 참석했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가버리신 유지분의 이름을 주운 언니는 울상이 되어 목 터져라 그분 직함을 불러대는 모습이 애처럽기도 하여 가짜 어른이 대신 뛰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최고로 흥분되는 경기는 4, 5, 6학년 남학생들이 총출동하여 벌이는 기마전이었다. 적군의 머리띠를 빼앗으면 이기는 경기인

데, 대장의 모자를 뺏기면 나머지가 아무리 많이 남아도 지기 때문에 대장을 호위하느라 빙 둘러싼 모습은 군인들의 작전을 방불케 하기도 했다. 마지막 경기는 으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남녀 각각 1명씩 출전하여 벌이는 릴레이 달리기다. 이 릴레이 선수에 뽑히는 아이는 거의 자기 학년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아이였다. 운동장을 반 바퀴씩 도는 릴레이 경기 도중 넘어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많이 뒤처지기 때문에 응원석은 거의 일어난 채로 와와 응원을 열심히 하였다.

운동회가 끝나고 부모님과 함께 돌아오는 들판 길에서 공책을 몇 권씩 상으로 받은 아이는 아주 의기양양해 했고, 이웃집에 산다고 그 공책을 한 권이라도 주게 되면 친구 부모님이 몇 번이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을 해주기도 하셨다. 누렇게 익어가는 벼는 들판은 높고 파란 가을하늘과 함께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내년을 기약하는 아이들이 가슴을 부풀게 하기도 했다.

더우면바지걸고

블로그 雨里書齋 <http://blog.daum.net/uriseojae>

저자 더바

발행일 2011.03.28 22:09:10

 블로그